

보험동향 2013년 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채원영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 목차

I. 테마진단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 과제 / 1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 13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1

2. 국내경제 / 48

3. 금융경제 / 59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65

2. 생명보험 / 68

3. 손해보험 / 86

IV. 글로벌 이슈 / 112

V. 통계표 / 119

I. 테마진단

◆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 과제

조재린 연구위원, 김해식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재보험계약(이하 ‘재보험’이라 함)의 위험전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었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위험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왔음.

○ 현행 감독규정은 출재보험회사가 재보험을 통해 보험위험을 전가하여 재보험회사가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경우 해당 재보험에 대해 보험회계가 허용되나, 위험전가가 제한된 재보험에 대해서는 예치금회계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감독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재보험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험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보험에 보험회계가 적용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행 감독규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감독당국이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와 관련하여 평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무지침으로서 모범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평가하여 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에는 예치금회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9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2012년 10월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이 제시됨.¹⁾

■ 본고는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최근 감독당국이 제시한 보험위험전가의 평가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1)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2. 보험위험의 전가와 재보험 회계처리

가. 재보험 등 위험전가수단에 관한 국제보험감독원칙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재보험 거래에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을 경우 해당 재보험에 보험회계가 아니라 예치금회계를 적용하는 감독기준의 수립을 요구함.²⁾

-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에 따르면,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재보험 등 위험전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독자는 위험전가기준을 보험회사에 제시하여야 함(ICP 13).
 - 세부적으로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재보험 거래와 관련 위험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 이를 통해 감독자는 위험전가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이때, 감독자는 총 보험료에 비해 위험전가의 정도가 제한적인 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위험전가 정도에 걸맞은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함(ICP 13. 2. 7).
 - 위험전가가 제한된 재보험은 흔히 금융재보험으로 불리며, 때로는 한정위험재보험, 손실완화재보험, 구조화된 재보험, 비전통재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함(ICP 13. 2. 6).

■ 위험전가 정도에 따라 재보험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데는 위험전가 정도가 낮은 재보험이 위험전가의 특성 이외에 자금조달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서(Culp 2005) 전통적인 재보험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할 경우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실제로 한정위험재보험은 실질적인 위험 경감 효과보다는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고,
- 이는 투자자에게 보험회사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계가 아닌 예치금회계의 적용이 요구됨.

2) ICP 13(재보험 등 위험전가수단).

나. 미국의 사례 : AIG의 재보험 남용과 위험전가평가의 중요성 대두

■ 미국에서도 재보험에 대한 보험회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재무회계와 감독 회계 모두 위험전가 여부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³⁾

- 일반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보험 거래를 통해 보험위험이 (1) 실질적으로 전부 또는 (2) 상당한 정도 전가된 재보험 거래에 대해서만 보험회계가 적용될 수 있음.

재보험자(재보험회사)가 원보험자(출재보험회사)로부터

1. “실질적으로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위험의 인수,
또는
2. “상당한 손실”을 입을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⁴⁾ 즉 “상당한” 위험을 인수하는
재보험 거래에 대해서 보험회계가 적용될 수 있음.

■ 위험전가가 상당하면, 출재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모두 재보험료를 손익계산서의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⁵⁾ 상당한 위험전가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재보험을 금전대차거래로 분류하여 보험회계가 아닌 예치금회계를 적용하게 됨.

- 보험회계를 적용하면 출재보험회사는 지급능력평가에서 재보험으로 출재한 규모만큼 준비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보험회사는 해당 재보험료만큼 손익계산서의 수익 증대효과를 얻게 됨.
- 반면, 예치금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모두 재보험료를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재무상태표에 금전대차거래로 반영해야하므로 재보험에서 기대되는 수익 증대와 지급능력 제고 효과는 사라지게 됨.

3) 일반회계기준(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은 출재보험회사에 대해 SFAS 113을, 수재보험회사에 대해서는 SFAS 60(재보험회계)과 SFAS 97(예치금회계)을 적용. 또한 감독회계기준(SSAP: Statement of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and Practices)에서는 SSAP 62가 재보험에 대한 보험회계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SOA(2010).

4) The reinsurer must assume "substantially all" of the underlying insurance risk or "significant" risk; that is, it must be "reasonably possible" that the reinsurer can suffer a "significant loss". CAS(2005).

5) 재보험회계의 재무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융감독원(2011)의 보험회계해설서 참조.

■ 미국 AIG(재보험자)와 Gen Re(원보험자)의 재보험 거래는 위험전가가 없음에도 보험회계를 적용하여 수익 증대와 주가부양 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재보험 오남용 사례임.⁶⁾

- AIG와 Gen Re는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손실금이전(loss portfolio transfer)재보험을 체결하였으나, 재보험자인 AIG의 손실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는 계약이었음.
- Gen Re는 보험가입금액이 6억 달러인 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대가로 5억 달러의 보험료를 AIG에 지급하는 재보험 거래를 체결함.
- 이때, AIG는 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를 Gen Re에 재보험수수료로 지급하여 재보험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해당 보험료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함.
- 그런데 AIG에 출재된 계약들은 이미 다른 재보험에도 가입된 계약들이어서 AIG가 부담하는 위험은 5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보험가입금액이 6억 달러이므로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에 대한 것이었고, 그 손실 가능성도 희박하여 사실상 AIG가 부담하는 위험은 거의 없는 거래였음.
 - 실제로 Gen Re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AIG와의 재보험을 예치금회계로 처리하여 동일 거래를 보험회계로 처리한 AIG와 대조를 이룸.
- 당시 AIG는 손해보험업 성과의 주요 지표인 지급준비금을 높이려는 의도로 Gen Re와 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을 거래하고 여기에 부당하게 보험회계를 적용한 것임.
 - 당시 AIG 주주들은 지급준비금 하락과 영업성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에 AIG 경영진은 역외지역(offshore)의 재보험회사들을 이용한 재보험 거래와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해 AIG의 재무성과를 과장했던 것으로 나타남.
 - Gen Re와의 재보험 거래도 그런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0년 전 후에 걸쳐 일어난 AIG의 재보험 거래 조사과정에서 Gen Re와의 재보험에 대한 실체가 2005년에 드러나게 됨.⁷⁾

6)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2011).

7) 2005년 2월 AIG가 일련의 재보험 거래를 통해 지난 5년간 수익이 10% 이상 분식되었고 이를 반영해 다시 작성된 순자산이 27억 달러 감소하면서 AIG의 주가는 30% 하락함. 이로써 미 증권거래소와 뉴욕주 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되어 AIG와 Gen Re는 투자자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합의금(AIG 16억 달러)을 지급하였고, AIG와 Gen Re 관련 임직원 5명은 형사상 기소를 당해 2011년 항소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태임. Brenza(2008).

■ AIG 사례는 보험감독, 외부감사, 보험전문인(계리사 등)의 모니터링 실패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이에 따라 보험감독과 관련하여 주별 감독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방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재보험 관련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
- 직접적인 대응으로는 미국보험감독관협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보험회사의 CEO와 CFO에게 재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⁸⁾ 위험전가의 정량평가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됨.
 - 첫째, 출재보험회사(보고 주체)와 재보험회사 간에 별도의 이면계약 등이 없고,
 - 둘째, 위험전가가 명백하지 않은 모든 재보험에 대해서는 문서화하며,
 - 셋째, 재보험관련 감독회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재보험 활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재보험 보험위험전가의 정량 평가

가. 미국 손해보험계리사회(CAS)의 위험전가평가 지침

■ 미국 손해보험계리사회(CAS: Casualty Actuarial Society)는 위험전가 여부를 가리기 위한 3단계 계량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위험전가가 명백하지 않은 재보험에 대해서 정량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CAS는 재보험의 위험전가 여부에 대해 3단계의 단계별 평가 틀을 제시함.⁹⁾
- 이때, 보험위험의 전가가 명백한 재보험에 대해서는 계량적 평가가 필요 없음.
- 보험위험의 전가가 명백한 경우에도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계량적 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8) NAIC는 2005년 Reinsurance Attestation Supplement를 제정함. Vendetti, P. A. and Freihault, D. W.(2008).

9) CAS(2005).

- 따라서 CAS는 위험전가가 명백한지 여부를 우선으로 평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량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평가지침을 제시함.

(1단계) 모든 위험의 실질적 전가 여부 평가

→ 충족 시 평가 중단. 그러나 1단계 미 충족 시 2단계 평가 수행

(2단계) 위험전가 여부가 합리적으로 자명한지 평가

→ 충족 시 평가 중단. 그러나 2단계 미 충족 시 3단계 평가 수행

(3단계) 권고하는 평가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하여 임계값과 비교

- CAS가 권고하는 위험전가에 대한 정량평가방식은 재보험자의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을 평가하는 것임.

나. 재보험자의 기대손실(ERD) 평가¹⁰⁾

- ERD는 재보험으로 인하여 수재보험자가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을 수재보험자가 받은 재보험료로 나눈 비율임.

-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은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함.

- 이때, 심도의 현재가치(T)는 재보험의 손익이 없는 손익분기점상의 TVaR값임.

$$ERD = p \cdot T / P$$

p =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확률 (즉, 빈도)

T = 손실발생 시의 평균 심도의 현재가치

P = 기대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10) 김소연(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ERD는 위험을 정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하고,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함.
- VaR나 TVaR보다 더 나은 리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1〉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 (예시)

손해액	확률	손실 현가
0	96%	1.0억 원
5억 원	2%	3.8억 원
15억 원	1%	13.4억 원
25억 원	1%	23.0억 원
기대값		0.5

-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가 〈표 1〉과 같고 원수보험사의 50억 이상의 손해에 대해 25억까지 보상하는 재보험을 1억의 보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동 재보험의 ERD는 44%로 계산됨.¹¹⁾
- 손실 발생 확률(p) = $2\% + 1\% + 1\% = 4\%$
- 기대손실 현가(T) = $(3.8 \times 2\% + 13.4 \times 1\% + 23.0 \times 1\%) / 4\% = 11.0$ 억
- 따라서 $ERD = p \cdot T / P = 4\% \times 11.0 / 1.0 = 44\%$

■ 미국에서 ERD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10-10 rule’ 평가기준이 사용되어 왔는데, 심도에 비해 빈도가 현저하게 높거나 심도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10-10 rule’ 기준이 위험전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2005년 CAS는 ERD를 권장함.

- ‘10-10 rule’ 평가기준은 보험료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순손실이 10% 이상의 빈도로 발생할 때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 이는 ERD 1%(= $10\% \times 10\%$)로 환산되는 수준임.
- 그러나 위 예시의 경우와 같이 대형재난을 보상하는 재보험의 경우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ERD가 44%이더라도 ‘10-10 rule’은 보험위험전가가 없다고 평가함.

11) 모든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인 1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할인율은 4%로 가정함. 김소현(2013).

- 일부 비례재보험처럼 심도가 낮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도 ‘10-10 rule’은 보험위험전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국내 재보험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시행과 과제

가. ERD 방식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제도 도입

■ 국내 감독규정은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따라 재보험 또는 예치금(또는 예수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함.¹²⁾

- 즉,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함.
- 이때, 실질적으로 위험이 전가된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으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예치금(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됨.¹³⁾
- 또한,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¹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보험회사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보험위험전가가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을 이용한 사례가 있음.

- 과거 일부 원수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재보험자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1년 RBC제도의 시행 이전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보험료, 위험보험금 총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구조여서,
 - 재보험계약을 통한 책임준비금, 보험료, 위험보험금 총액의 감소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큰 영향을 미침.
- 원수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재보험으로 회계처리 하여 실질적인 보험위험은 거의 줄이지 않으면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낮춤.

1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13)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14)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 이는 원수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높임,
- 현재는 2011년 RBC제도의 시행으로 재보험을 이용한 요구자본(과거 지급여력기준금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
- 리스크 세분화, 보험종목별 보험위험 산출 등의 영향임.

■ 이에 2012년 9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2012년 10월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시됨.

- 2012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조항이 신설되고 동 세칙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마련됨.
- 2012년 10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시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의 목적이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¹⁵⁾ 평가 시에는 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 ERD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함.¹⁶⁾

-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경우는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 시 부가급부금비율 기준¹⁷⁾을 사용하도록 정함.

1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2-1. (보험위험전가 평가제외 재보험계약).

1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3.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의 분류).

1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보험계리기준] 2-4. (평가기준) 참조.

나. 보험위험전가의 정량 평가 시행과 과제

■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촉진하고 투명한 지급능력평가에 기여할 것이나,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보험회사의 재보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그러나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위해서는 Data 수집, 모형설정, 모수추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서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RD)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⁸⁾고 되어 있어 모든 손해보험 재보험에 대해 ERD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¹⁹⁾

■ 또한, 계량적 수치가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보험위험 전가성이 있는 재보험계약의 경우에도 ERD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IAIS, CAS 등은 재보험거래의 목적 및 계약내용 등 계약의 본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함.

18)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5-5-1.

19) 위험전가가 명백한 재보험계약의 예에 대해서는 유명신(2005) 참조.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재보험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이용하여 재보험을 통한 위험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산분배 등 위험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김소연(2013),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KiRi Weekly 포커스,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2011), 『보험회계해설서』.

_____ (2012),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전문』.

유명신(2005), 『금융재보험 감독관련 국제동향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겨울, 금융감독원.

Brenza, R. (2008), "Insurance Fraud at AIG".

CAS(Casualty Actuarial Society, 2005), "Risk Transfer Testing of Reinsurance Contract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Culp, C. and Heaton, J. B. (2005), "The Uses and Abuses of Finite Risk Reinsurance",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17(3), A Morgan Stanley Publication.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006), "Guidance Paper on Risk Transfer, Disclosure and Analysis of Finite Reinsurance".

ICP 13(Insurance Core Principles No.13), Reinsurance and Other Forms of Risk Transfer, IAIS.

SFAS 113(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13),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Reinsurance of Short-Duration and Long-Duration Contract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2011), "United States v. Ferguson".

Vendetti, P. A. and Freihaut, D. W. (2008), "Actuarial Details of Risk Transfer Come the Forefront", Pinnacle, June 2008, Actuarial Resources, Inc.

◆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송윤아 연구위원, 전성주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94년 Hanover Re가 처음 대재해채권을 발행한 이후 보험연계증권은 세계 재보험담보의 약 17%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전통적 재보험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음.

○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 이하 'ILS'라 함)은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의미함(Krutov 2010).

- ILS는 일반적으로 대재해채권(Cat Bond)을 지칭하지만 이외에도 사이드카(Sidecar), 산업손실보증(Industry Loss Warranties, 이하 'ILW'라 함), 대재해파생상품과 같은 손해보험연계증권과 장수채권 및 장수파생상품, 생명보험 전매제도(Life settlement)와 같은 생명보험연계증권²⁰⁾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²¹⁾

○ ILS는 '12년 6월 말 현재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시장에서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²²⁾

■ 이와 함께 ILS 활성화가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ILS는 재보험시장에 추가 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대재해 발생 이후 재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 원수보험회사에 전통적 재보험 이외의 위험전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회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며 재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됨.

20) 본고에서 대재해채권은 자연재해리스크 채권뿐 아니라 생명보험의 사망리스크 채권을 포함함.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사망리스크를 헤지하는 대재해채권을 발행함(예: 2013년 12월 Swiss Re의 mortality cat bond).

21) 대재해채권, 산업손실보증, 사이드카에 대한 상세 설명은 3장을 참고 바람.

22) 재보험시장규모는 생·손보 재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재보험 및 ILS의 시장규모는 LGT의 ILS 팀에서 추정한 규모임.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기사 참조: <http://www.artemis.bm>, "Capital Market Participation in Reinsurance to Grow Quicker than Traditional Capacity; LGT"(2012. 7. 12).

- 반면, ILS는 재보험시장에 충분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요율 인상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재보험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재보험회사를 위협하기도 함.
- '12년 골드만삭스는 최근 세계적인 재보험회사인 버뮤다 소재 RenaissanceRe에 대한 평가를 '매수추천'에서 '중립'으로 조정하면서 비전통적 재보험에 의한 신규 자본 유입을 평가 하향조정의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음.²³⁾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2년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EU의 보험제공 금지 조치로 인해 대혼란을 겪은 후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됨.

- '12년 1월 EU의 대이란 제재조치 발표에 따라 EU 회원국 소재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12년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과 관련된 모든 보험 제공을 중단키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2년 8~9월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이란이 자체적으로 유조선을 제공하면서 수입을 재개할 수 있었음.²⁴⁾
- 이외에도 대재해 빈발과 그로 인한 재보험수요 증가 및 세계 재보험시장 경성화 가능성, 재보험 신용리스크 상존, 보험산업의 자본중심 규제강화 등은 담보력 확충의 필요성과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함.
- 재보험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경성시장(hard market)일 때 원수보험회사는 재보험인수를 거부당하거나, 높은 재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전가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ILS 도입 및 성장을 촉진한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를 고찰하고, ILS 유형, 특징, 현황, 그리고 재보험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3) <http://www.artemis.bm>, "Goldman Sachs goes neutral on reinsurance, capital flow into alternatives a factor"(2012.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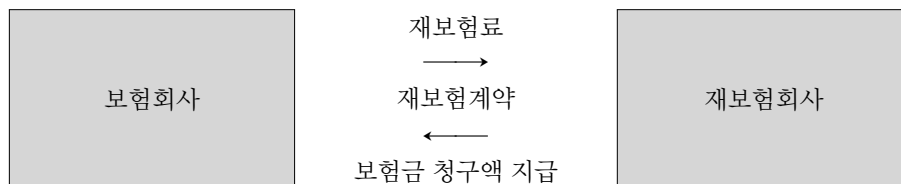
24) '11년 국내에서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8,718만 배럴(전체 원유수입량의 9.4%)이었으며 통상 원유 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초대형 유조선은 화물보험 2억 5천만 달러, 선박보험 1억 달러, 침몰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배상을 위해 10억 달러의 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총 1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험을 들어야 항해가 가능한데 이런 대규모 보험은 유럽계 대형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만 제공함.

2.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

■ 전통적 재보험에서 재보험회사는 리스크 풀링(pooling)과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원수보험회사와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내부화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달성함.

- 재보험회사는 출재사와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정보취득과 분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재보험요율을 효율화함.
- 그러나 재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이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지급불능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림 1〉 전통적인 재보험의 현금흐름



자료: Krutov(2010).

■ 반면, 전통적 재보험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전 세계 재보험담보력은 대재해위험에 취약한 지역의 재산가치와 비교하여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2005년 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이하 'KRW'라 함)로 인한 손해액은 약 900억 달러(2006년 기준)로, 이는 세계 재보험회사 자본(2007년 기준 4,110억 달러)의 약 25%에 해당하는 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채권과 주식 가치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둘째, 재보험거래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보험회사와 자본시장 간 정보비대칭 문제와 대리인 비용문제, 그리고 규제·회계·세제와 같은 마찰비용 등이 발생하여 재보험시장에 높은 자본비용을 초래함.

- 재보험계약은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재보험회사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며 자본조달이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움.

- 언더라이팅에 대한 사적정보는 보험시장 참여자 이익의 원천이기 때문에 정보비대

칭의 정도에 따라 보험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음.

- 높은 마찰비용 및 대리인 비용 때문에 투자자는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재보험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ILS를 선호할 유인이 있음.

■ 셋째,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경성시장과 연성시장을 오가는 재보험 언더라이팅 사이클 발생이 필연적이며 이는 재보험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함.

- 거대재해 이후 재보험 수요 대비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인수기준이 엄격하고 요율이 높아지는 등 재보험시장이 경성화되는 경향이 있음.
 - '92년 허리케인 Andrew로 인해 '93년을 정점으로 경성시장을 기록했던 재보험시장은 '94년에 이르러서야 연성시장(soft market)으로 전환됨.
 - '01, '02년 WTC 테러에 기인하여 요율이 27% 인상되는 등 경성시장으로 전환됨.
 - '05년 허리케인 KRW로 '06년 경성시장 도래, 요율이 19% 인상됨.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허리케인 IKE 및 Gustav로 요율이 7% 인상되며, 국지적으로 재(재)보험 담보력이 축소되고 요율이 상승함.

■ 넷째, 신용리스크와 출재사별 신용리스크 노출도 차이는 재보험시장에 비효율을 초래함.

- 재보험회사는 리스크 풀링과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으며, 이는 출재사가 신용리스크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
- 재보험회사가 지급불능위험에 빠질 경우 재보험회사의 자산은 출재사의 클레임 규모에 비례하여 분할되며, 이는 출재사의 신용리스크 노출도가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상이함을 의미함.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재보험회사에 저빈도 위험을 전가한 출재사는 고빈도 위험을 전가한 출재사보다 신용리스크 노출도가 더 높음.²⁵⁾

25) 상세한 내용은 Lakdawalla and Zanjani(2012)를 참고하기 바람.

- 상술한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는 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한편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기법, 즉 보험증권화를 촉진함.

3. 보험연계증권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성장

가. 보험연계증권의 유형 및 특징²⁶⁾

- ILS는 발행목적에 따라 극단적인 위험전가를 위한 증권화, 자금조달 및 자본규제 충족을 위한 증권화, 내재가치의 증권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재해채권, 사이드카, ILW 등이 주로 활용됨.²⁷⁾

- ILS는 대부분 보험리스크 발생에 따른 극단적인 보험금지급 부담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대재해채권, ILW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ILS 활용은 조건부자본약정(contingent capital), 사이드카와 같은 형태로 이뤄짐.

1) 대재해채권

- 대재해채권은 대재해라는 특정 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연계 채권(event-linked bonds)의 한 종류로 보통 발생확률 1% 이하의 사고에 대한 재보험 보장을 담보함(Cummins 2008).

- 이러한 사고의 경우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이나 기대손실에 비해 너무 높은 재보험료 마진 등으로 인해 원수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 모두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재보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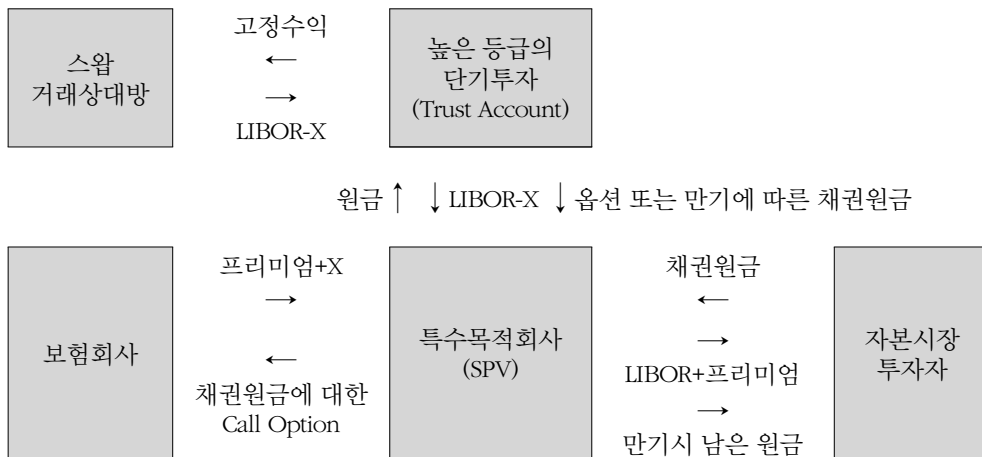
26) 상세한 내용은 이상립(2010)과 Cummins and Weiss(2009)를 참고하기 바람.

27) Cowley and Cummins(2005)에서는 보험증권화를 생명보험리스크 증권화, 거대자연재해 리스크의 증권화, 미래 현금흐름의 증권화, 준비금 펀딩 증권화, 순수자산 증권화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순수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첫 두 가지 유형을 협의의 보험 증권화로 정의함.

■ 대재해채권의 발행은 원수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들 보험회사는 특수목적기구를 설립, 채권발행과 원금 운용을 담당하게 함.

-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라 함)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 수익금을 별도의 신탁계정(trust account)을 통해 국채나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와 같은 단기안전자산에 투자함.
- ILS 채권에는 특정한 대재해사고에 의해 원금을 보험회사에게 지급토록 하는 옵션(call option)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위험이 있어 투자자들은 투자액 일부 또는 모두를 잃을 수 있음.
 - 이러한 옵션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는 재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함.
- 일반적으로 담보신탁계정에서 투자된 안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금리수익은 다시 런던은행간금리(LIBOR)와 같은 변동금리수익으로 교환(swap)되어 채권투자자들과 보험회사들을 이자율위험과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투자자들에게 LIBOR 금리와 더불어 ILS 투자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을 제공함.
- 채권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ILS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이 지급됨.

〈그림 2〉 대재해채권의 발행구조



주: X는 금리스왑 비용을 의미함.
자료: Cummins(2008).

■ 대재해채권의 원금손실 옵션을 유발하는 트리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상형, 지수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트리거 조항은 각각 투명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베이스스 리스크간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

- 보상형 트리거(indemnity triggers)는 ILS를 스폰서하는 보험회사의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됨.
 - 보상형 트리거는 베이스스 리스크(basis risk)²⁸⁾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선호하는 조항이지만 투자자들이 보험회사의 실제 위험노출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수형 트리거(index triggers)는 개별 보험회사가 아닌 산업 전반에 걸친 손실추정액(industry loss indices)이나 주요 재해손실모형을 만드는 회사에 의해 모형화된 손실추정액(modeled-loss indices), 또는 허리케인의 속도나 장소 등과 같은 대재해의 물리적 기준에 기반한 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됨.
 - 지수형 트리거는 지수를 구성하는 기준들의 측정이 더 빠르고 해당 보험회사의 실제 손해액과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소화되며 투자자들이 선호함.
- 혼합형 트리거(hybrid triggers)는 이상의 여러 가지 트리거들을 한 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 대재해채권은 채권발행원금이 특수목적회사에 의해 별도의 신탁계정에 의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지불할 보험금이 모두 담보화되어 지급불능위험이 없으며 전통적 재보험보다 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밖에도 채권만기를 장기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재보험시장의 가격변동에 영향 받지 않으며 채권발행을 위한 고정비용을 수년 동안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28) 베이스스 리스크란 사고에 따른 보험회사의 실제 손실액과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 원금의 지급액 차이를 의미함.

2) 사이드카

■ 사이드카는 비영구 특수목적기구(limited-life SPV)로서 이를 통한 거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본을 제공받는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재)재보험과 유사함.

- 즉, (재)보험회사는 사이드카와 비례재보험계약(quota share reinsurance)을 체결하여 출재·이익수수료를 수령함.
- 사이드카를 통한 자금조달은 보통 경성시장이 시작될 때 약정하고 연성시장 직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한의 서류작업과 관리비용을 들여 쉽게 만들 수 있음.

■ 사이드카 방식은 전통적 재보험에 비해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보험회사는 사이드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들여 인수능력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한 레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재보험회사는 경쟁자와 언더라이팅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보험보다는 사이드카 활용을 선호함.
- 투자자 관점에서 사이드카는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기존 재보험회사에 투자하거나 재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투자수단임.

3) 산업손실보증

■ ILW는 채권을 발행하는 출재사의 손실액에 연계된 보유형 트리거(retention trigger)와 산업손실 지수에 연계된 보증형 트리거(warranty trigger)의 이중 트리거 조항을 설정하고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임.

- 보험회사의 특정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보상 내지 재보험계약으로서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손실지표에 연계하여 보상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발행이 용이함.
- 또한, 세계적인 상업은행이 발급하는 신용장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등급 외의 헤지펀드가 소유하는 재보험회사는 증권매입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ILW는 베이스스 리스크를 가지게 되므로 전체 보험시장과 리스크관련 특성이 유사한 보험회사에 가장 매력적인 동시에 감독당국에 의해 재보험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1〉 주요 보험연계증권의 특징

구분	대재해채권	사이드카	산업손실보증(ILW)
거래상대방 리스크	신탁에 의해 최소화	발행구조 및 담보조건에 따라 상이	담보여부에 따라 상이
베이스스 리스크	원리금지급조건에 따라 상이	낮음	존재
도덕적 해이	존재(non-indemnity의 경우 부존재)	낮음	부존재
투명성	높음	높음	높음
다년계약	대부분	가끔	No
표준화 정도	중간	낮음	중간
유동성	중간	낮음(재보험시장에 한정)	낮음

자료: 이상림(2010); Cummins, J. and Weiss, M. (2009).

나.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IL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17%로 전통적 재보험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 ILS 투자전문 자산관리 회사인 LGT는 '12년 6월 말 현재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ILS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음.²⁹⁾
- 재보험 중개 및 자문 회사인 Guy Carpenter와 PWC 등에 따르면, ILS가 세계 재해 재보험담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년 14%로 '07년에 비해 2%p 증가함.³⁰⁾

29) 다음 자료들을 참조함: <http://www.artemis.bm>, "Capital Market Participation in Reinsurance to Grow Quicker than Traditional Capacity; LGT"(2012. 7. 12); <http://www.artemis.bm>, "ILS investment manager interview: Michael Stahel, LGT Insurance-Linked Strategies"(2013. 3. 20).

30) 자세한 내용은 PWC(2012)와 Guy Carpenter(2008)를 참고하기 바람.

■ 구체적으로 대재해채권의 경우 '12년 기준 발행규모가 약 60억 달러, 발행잔액이 150억 달러이며 '96년 첫 발행이후 누적발행규모가 440억 달러에 이름(Aon Benfield 2012a).

○ 신규 발행규모는 '02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81억 달러로 최고 발행규모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평균 53억 달러의 발행규모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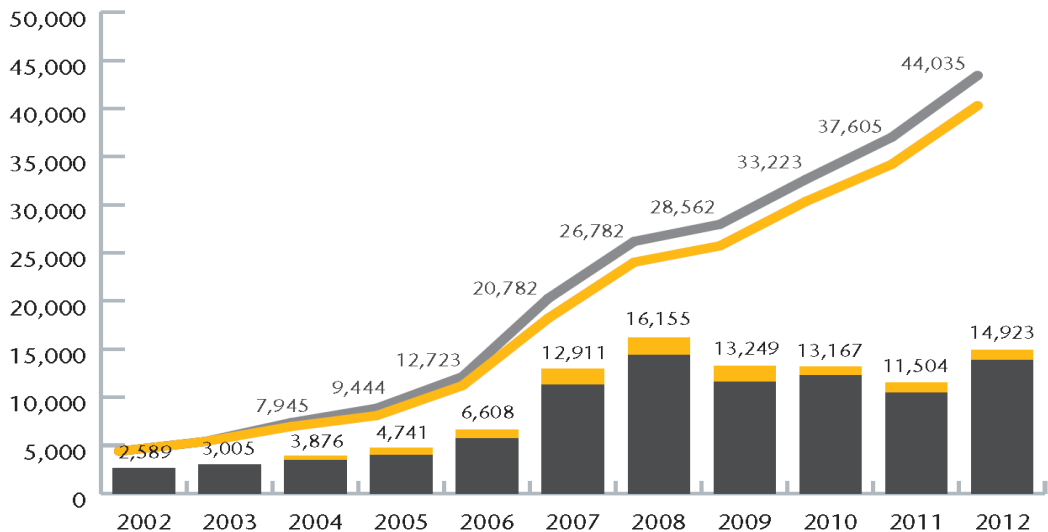
- '12년 발행규모를 살펴보면 미국 허리케인, 지진위험, 유럽의 폭풍위험 등 자연재해 리스크 채권의 발행규모는 61억 달러이고 생명보험리스크 채권의 발행규모는 '12년 기준 3.3억 달러로 전체 발행규모의 4.7%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자연재해리스크를 중심으로 신규 발행됨을 알 수 있음.

- '11년 23건의 거래가 건당 평균 1억 9,000만 달러 규모로 이뤄졌으며, '12년에는 27개의 거래가 건당 평균 2억 7,700만 달러 규모로 이뤄짐.

○ 발행잔액은 '09년 이후 3년 동안 만기도래 채권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발행 규모 감소로 줄었으나, '12년 신규발행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함.

〈그림 3〉 대재해채권 누적발행규모와 발행잔액 (2002~2012)

(단위: 백만 달러)



주: 1) 막대 그래프의 진한 부분은 자연재해리스크 채권의 발행잔액이고 연한 부분은 생명보험리스크 채권의 발행잔액임.

2) 선 그래프의 얇은 선은 누적손해보험채권 발행금액(cumulative property issuance)이고, 짙은 선은 누적채권 발행금액(total cumulative bond)임.

자료: Aon Benfield(2012a).

〈표 2〉 연도별 손해보험리스크채권과 생명보험리스크채권 신규 발행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행 금액	998	1,011	1,958	1,499	3,279	8,145	5,914	1,780	4,661	4,382	6,430

자료: Aon Benfield(2012a), "Reinsurance Market Outlook".

■ 또한, 대재해채권 발행 초기에는 주로 보험회사들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헤지펀드, 연금펀드 등으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됨.

○ 대재해채권 투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초기 주요투자자는 보험회사들로서 55%를 차지하였으나 이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12년에는 5%에 불과한데 반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대재해펀드의 비중이 5%에서 51%로 늘어남.

○ 대재해채권의 경우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본시장과의 비상관성으로 인한 투자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07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여타 금융투자지수들에 비해 대재해채권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임.

〈표 3〉 대재해채권 투자자 유형

구분	대재해펀드	헤지펀드	(재)보험회사	기타
1999년	5%	5%	55%	35%
2007년	55%	17%	7%	21%
2011년	34%	5%	7%	54%
2012년	51%	5%	5%	39%

주: 기타는 연금펀드, 뮤추얼펀드, 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의미함.

자료: 1999년과 2007년 값은 Cummins J.(2007), "CAT Bonds and Other Risk-linked Securities: State of the Market and Recent Development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p. 37, 2011년과 2012년은 Aon Benfield(2012) p. 14를 참고함.

〈표 4〉 대재해채권 수익률(2007. 06~2012. 06)

구분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변동성
Swiss Re BB rated cat bond index(in USD)	7.6%	3.7%
Credit Swiss High Yield Index	7.7%	13.0%
Gitigroup World Government Bond Index	7.3%	7.8%
MSCI World Index	-2.4%	20.9%

자료: Aon Benfield(2012b), "Insurance-Linked Securities - Evolving Strength 2012", p. 19.

■ 사이드카 거래는 '01년 처음 이뤄졌으며 '05년 허리케인 KRW 이후 활성화되어 약 70억 달러 이상의 단기철수가능자본이 사이드카 형태로 재보험시장에 유입됨.

○ 허리케인 KRW 이후 사이드카 거래가 활성화되어 2005년 8개(25억 달러), 2006년 11개(29억 달러), 2007년 7개(20억 달러) 거래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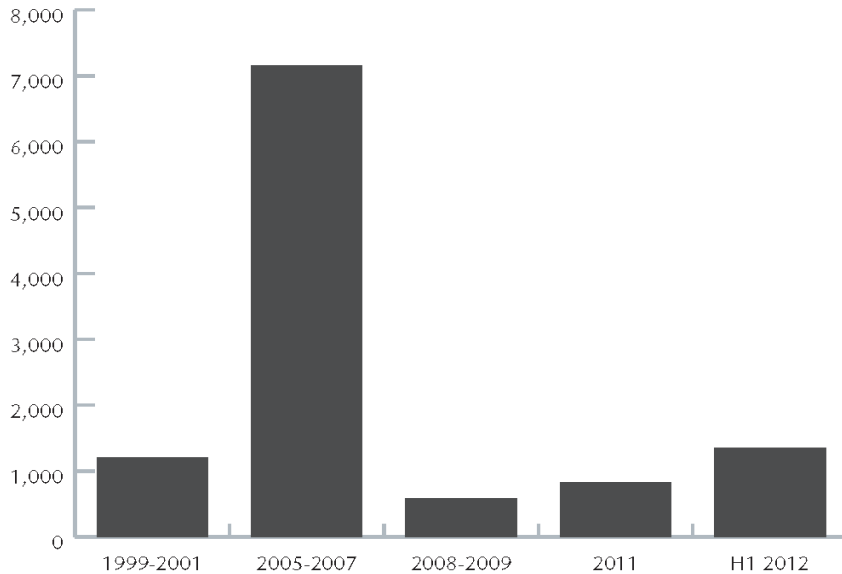
○ KRW 이후 큰 자연대재해 피해가 없어 투자자들은 연평균 25% 이상의 고수익을 거두고 (재)보험회사들은 수수료 수입과 더불어 충분한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 2007년 이후 특별한 대재해가 없고 연성시장이 지속되어 사이드카 수요 및 공급이 현저히 줄었지만, 향후 대재해 발생 시 유용한 긴급자본제공처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대재해채권은 장기자본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이드카는 경성시장에서 1~3년 동안 사용되는 단기긴급자본의 성격을 가짐.

〈그림 4〉 사이드카 발행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on Benfield(2012b),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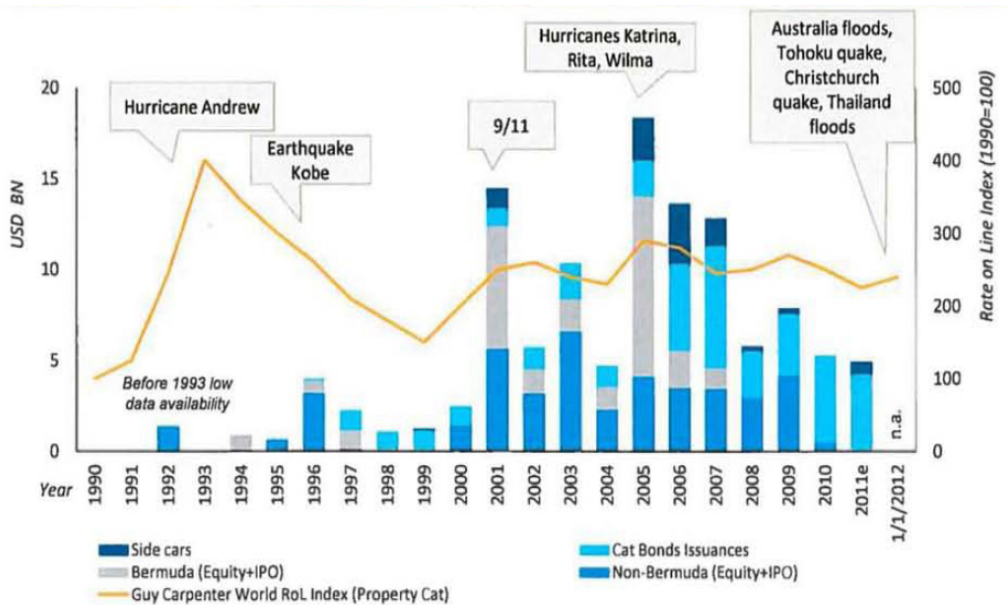
■ LGT는 ILS 등이 '14년에는 적어도 생·손보 재보험시장의 22%, '16년에는 25%를 차지하면서 전통적 재보험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4. 보험연계증권이 재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IAIS(2009)는 ILS가 대재해 이후 담보력 및 재보험료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대재해 발생 이후 높은 요율 및 이윤을 취하기 위한 신규자본이 재보험산업에 대량 유입되어 시장이 극도로 경성화되는 것을 막음.
- 대재해 이후 재보험시장에 유입된 자본의 형태를 살펴보면, 허리케인 Andrew의 경우 사이드카나 대재해채권을 통한 자본유입이 없었던 반면, 9/11 테러의 경우 신규자본의 4%, KRW의 경우 신규자본의 20%가 ILS로 구성됨.
- 또한, 언더라이팅 사이클은 1992년 Andrew 이후보다 2005년 KRW 이후 더 짧게 지속되었으며 보험료 인상폭도 더 작았음(〈그림 5〉 참조).

〈그림 5〉 재보험시장에 유입된 신규자본의 구성



주: Rate on lines는 XOL 재보험의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계약의 최대가능지급액 대비 재보험료의 비율임.

자료: Brahini, B. and Menhart, M. (2012), "Systemic Risk Discussion-Reinsurance Perspective", Feb.

■ 또한, ILS는 다각도에서 원수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 구체적으로 첫째, ILS를 통해 자본시장의 거대자본을 리스크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담보력 및 인수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현재 재보험시장에 수요자 중심의 연성시장이라 하더라도 향후 경쟁시장으로 변환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전통적 재보험 이외의 위험전가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보험회사와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그동안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기대손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재보험요율 때문에 극단적인 보험리스크를 전통적 재보험을 통해 헤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음.
- 셋째, 보험회사와 발생 시 재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의 즉시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넷째, 보통 고정가격으로 3~10년의 채권기간이 확정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수능력 확보 및 리스크 전가가 가능함.

■ 반면, ILS의 성장이 재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상존함.

- ILS를 통해 재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위험 노출도를 관리하고, 특히 사이드카를 통해서 유동적일 수 있는 언더라이팅 이윤을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반면, ILS는 특정 리스크 사업에서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전통적 재보험은 신용리스크를 가진다는 점에서 ILS와의 경쟁에서 불리함.
 - 리스크가 수적으로 많고 통계적으로 독립적이고 MPL(Maximum Possible Loss)이 비교적 작은 경우 전통적 재보험이 유리함.
 - 리스크의 상호연관성, 왜도(skewness), MPL이 커질수록 ILS는 재보험의 대체재로서 경쟁하며 일정수준을 넘어설 때는 보완재적 성격을 가지기도 함.
- 또한, ILS는 재보험시장에 충분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재보험요율 인상 모멘텀을 약화시킴.
 - 실제로 재보험회사는 극단적 보험리스크 사업에서, 그리고 대재해 이후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높은 요율과 함께 높은 이윤을 남겼으나 ILS 도입과 함께 시장에 자본이 넉넉해지면서 이러한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

5. 결론 및 시사점

■ ILS는 세계 재보험담보력 및 재보험요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원수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재보험을 대체 또는 보완하며, 향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원수보험회사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재보험의 지리적 집중도와 이로 인한 세계 재보험시장에의 종속, 그리고 재보험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첫째, 대재해 빈발로 인해 세계 재보험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경성시장일 때 원수보험회사는 재보험인수를 거부당하거나, 높은 재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전가가 어려울 수 있음.

- 손해가 발생한 지역 및 종목의 재보험요율이 인상되고 담보력이 충분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지리적 또는 정치적 거리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의존도가 높을수록 해외 사고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둘째,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EU의 보험제공 금지 제재조치처럼 특정지역 재보험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보험내·외적 요인에 의해 보험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함.
- 셋째, 대재해의 빈도 및 심도 증가, 보험산업의 자본중심 규제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리스크 대형화 등은 재보험수요를 증가시킴.
 -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손실 규모가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상 기후로 인해 태풍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재해위험이 잠재적으로 심각할 수 있으며 ILS 발행 대상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³¹⁾
 - 현재 빈도는 낮으나 사고발생시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선박보험, 항공우주보험, 해양종합보험 등)들의 경우 동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규모는 국내손보사들의 담보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외의존도가 높음.
 - '11년 재보험거래규모(출·수재보험료)는 15조 4,6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국내 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8조 4,000억 원으로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3.9%씩 증가하고 수재보험료는 약 7조 600억 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11.7%씩 증가함.

■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규모는 보험회사들의 총 자본금 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기 때문에 ILS 도입으로 인한 재보험시장의 담보력 확충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됨.

31) UN의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는 태풍(cyclone)으로 잠재적인 경제손실액 규모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89개국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임(1위 일본(8,900억 달러), 2위 미국(1460억 달러)). 이밖에도 이석호(2007)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지진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장수위험도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ILS를 통한 보험리스크의 자본시장 전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는 재보험 및 손해보험회사 자본총계의 약 125배에 이르며, 대재해채권 등의 발행대상 시장이 되는 회사채 시장규모는 재보험회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 자본총계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음.

- 2012년 9월 말 기준, 재보험회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총계는 22조 851억 원임.

- 2013년 2월 20일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289조 4,752억 원, 채권시장 발행잔액은 1,480조 2,066억 원이며 이중 회사채 발행잔액은 212조 3,821억 원(전체 채권 발행잔액의 15.1%)임.

■ 다만, 규제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ILS의 국내 도입이 더딘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보력 확충수단의 다변화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LS 도입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국내 SPV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와의 거래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기존 SPV에 출재하기 위해서는 재보험거래 관련 규정에 예외규정을 만드는 등 광범위한 법규 마련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이외에도 이상림(2010)은 증권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과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을 강조함.

- ILS가 발행되어 자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손실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지표³²⁾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함.

32) 예를 들어 미국의 Property Claim Services, JP Morgan의 LifeMetrics, Credit Suisse의 Longevity Index가 있음.

〈참 고 문 헌〉

- 이상립(2010), 『보험연계증권에 대한 고찰』, KRX Market.
- 이석호(2007), 『보험연계증권 발행의 확산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 A.M. Best(2012), Best Review, July.
- Aon Benfield(2012a), "Reinsurance Market Outlook".
- _____ (2012b), "Insurance-Linked Securities-Evolving Strength 2012".
- Brahin, B. and Menhart, M.(2012), "Systemic Risk Discussion-Reinsurance Perspective," Feb.
- Cowley, A. and Cummins, J.(2005),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Assets and Liabiliti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Cummins J.(2008), "CAT Bonds and Other Risk-linked Securities: State of the Market and
Recent Development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 Cummins, J. and Weiss, M.(2009), "Convergence of Insurance and Financial Market: Hybrid
and Securitized Risk-Transfer Solution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Guy Carpenter(2008), "The Catastrophe Bond Market at Year-End 2007: The Market Goes
Mainstream".
- IAIS(2009), "Development in (Re)Insurance Securitisation".
- Krutoy, A.(2010), "Investing in Insurance Risk: Insurance - Linked Securities-A Practitioner's
Perspective".
- Lakdawalla, D. and Zanjani, G.(2012), "Catastrophe Bonds, Reinsurance, and the Optimal
Collateralization of Risk Transfer",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OECD(2009), "Catastrophe-linked Securities and Capital Markets".
- PWC(2012), "Unlocking the Potential of ILS".
- <http://www.artemis.bm>, "Capital Market Participation in Reinsurance to Grow Quicker than
Traditional Capacity; LGT"(2012. 7. 12).
- _____, "Goldman Sachs goes neutral on reinsurance, capital flow into
alternatives a factor"(2012. 10. 5).
- _____, "ILS investment manager interview: Michael Stahel, LGT Insurance-Linked
Strategies"(2013. 3. 20).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2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제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선진국 경제가 부진하여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음.

■ 2012년 4/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은 부진하였으나 신흥국의 전분기대비 성장폭이 확대되어 2012년 3/4분기와 같은 수준인 0.7%를 기록하였음.

-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정부지출 감소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3/4 분기 0.3%에서 0.2%로 하락함.
- 신흥국 경제는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3/4분기 1.2%에서 1.7%로 상승함.

〈표 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0.9	0.9	1.0	0.6	3.9	0.9	0.6	0.7	0.7	3.2
선진국 ¹⁾	0.2	0.3	0.6	0.3	1.6	0.5	0.1	0.3	0.2	1.3
신흥국 ¹⁾	1.8	1.6	1.6	1.0	6.3	1.4	1.3	1.2	1.7	5.1
미국 ²⁾	0.0	0.6	0.3	1.0	1.8	0.5	0.3	0.8	0.0	2.2
유로 ³⁾	0.6	0.2	0.1	-0.4	1.4	-0.1	-0.2	-0.1	-0.6	-0.6
일본 ⁴⁾	-1.9	-0.7	2.5	0.1	-0.6	1.5	-0.2	-0.9	0.0	2.0
중국 ⁵⁾	2.2	2.5	2.4	1.7	9.3	1.5	2.0	2.1	2.0	7.8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3. 1).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2).

3) Eurostat(2013. 3).

4) 일본 내각부(2013. 3).

5) 중국 국가통계국(2013. 3).

■ 2012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99.7을 유지함.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중국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101.1	100.8	100.3	100.1	100.6	100.1	99.9	99.7	99.7	99.9
선진국 ³⁾	101.0	100.7	100.2	100.0	100.5	100.2	100.2	100.0	100.2	100.1
미국	100.6	100.4	99.8	100.0	100.2	100.5	100.5	100.5	100.8	100.6
유로	101.7	101.4	100.6	100.1	100.9	99.9	99.7	99.4	99.5	99.6
일본	100.6	100.4	100.2	100.3	100.4	100.5	100.4	100.1	100.2	100.3
중국	101.6	101.3	101.0	100.6	101.1	100.2	99.8	99.5	99.2	99.7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 +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4/4분기 세계 무역규모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선진국의 무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줄어들었으나 신흥국의 무역규모가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음.

- 세계 무역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은 전분기 대비 3.0%p 확대되어 6.7% 증가하였음.

〈표 3〉 세계 무역 규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10.2	5.7	5.2	2.5	5.8	1.9	2.9	1.8	2.3	2.2
선진국	8.9	3.8	3.3	1.3	4.3	0.9	1.8	0.2	-1.8	0.3
신흥국	11.5	7.8	7.3	3.8	7.5	2.9	4.1	3.7	6.7	4.4

주: 1)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4/4분기 소비 증가율이 소폭 확대되며 세계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음.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1.7%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신흥국은 같은 기간 5.8%에서 6.4%로 상승함.
- WTI 현물지수는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4.4% 하락하였으나 두바이 현물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분기대비 1.1% 상승하였으며 CRB지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대비 0.3%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2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4.0	3.5	3.4	3.5	3.6	두바이 현물지수	113.2	103.6	106.3	107.5	107.7
선진국	2.4	1.8	1.7	1.7	1.9	WTI 현물지수	97.0	92.1	92.2	88.1	93.8
신흥국	6.2	6.0	5.8	6.4	6.1	CRB 상품지수 ²⁾	315.3	288.6	299.7	298.7	301.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가. 미국경제

2012년 4/4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은 고용여건이 개선되었고 민간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4/4분기 실질GDP는 민간소비는 증가하였으나 민간투자 부진과 정부지출 감소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주택경기 회복세 가속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0.5% 증가함.
- 민간투자는 설비투자와 주택투자가 각각 3.3%, 4.4% 증가하였으나 허리케인 샌디에 따른 물류체계 훼손 등으로 재고투자가 2012년 3/4분기 603억 달러에서 4/4분기 133

억 달러로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침.

- 수출은 재화수출 둔화로 전분기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모두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1% 줄어듦.
- 정부지출은 3/4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방위비 지출이 4/4분기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여¹⁾ 전분기대비 1.7% 감소하였음.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0.6	2.4	0.0	0.6	0.3	1.0	1.8	0.5	0.3	0.8	0.1	2.2
민간소비	1.0	1.8	0.8	0.2	0.4	0.5	2.5	0.6	0.4	0.4	0.5	1.9
서비스	0.6	1.0	0.5	0.5	0.4	0.1	1.9	0.3	0.5	0.1	0.2	1.2
재화	1.9	3.6	1.3	-0.2	0.3	1.3	3.8	1.2	0.1	0.9	1.1	3.1
민간투자	-1.5	13.7	-1.3	3.0	1.4	7.6	5.2	1.5	0.2	1.6	0.3	9.8
설비	2.2	0.7	-0.3	3.4	4.4	2.3	8.6	1.8	0.9	-0.5	3.3	8.0
주택	0.4	-3.7	-0.3	1.0	0.3	2.9	-1.4	4.8	2.0	3.2	4.4	12.1
수출	2.4	11.1	1.4	1.0	1.5	0.4	6.7	1.1	1.3	0.5	-0.7	3.4
수입	0.0	12.5	1.0	0.0	1.1	1.2	4.8	0.8	0.7	-0.2	-1.1	2.4
정부지출	-1.1	0.6	-1.8	-0.2	-0.7	-0.6	-3.1	-0.8	-0.2	1.0	-1.7	-1.7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3),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²⁾는 2012년 말 민간소비가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정부지출 축소를 반영하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음.

- FOMC는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 12월의 2.3~3.0%에서 2.3~2.8%로 조정함.
- 고용시장 여건과 민간소비, 기업 고정투자(business fixed investment)가 개선된 점은 경기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시퀘스터 등 정부지출 축소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함.

1) 방위비 지출은 2012년 3/4분기 12.9% 증가하였으나 4/4분기 22.2% 감소하였음.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Working Group(2013. 2),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2) FOMC(2013. 3),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내수부문〉

■ 4/4분기 내수부문은 설비투자를 제외한 민간소비와 주택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호전됨.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65.7에서 69.7로 상승하였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1.5% 증가함.
-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4/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2.7p 상승한 145.2를 나타냈으며, 2013년 1월에도 전월대비 2.7p 상승한 147.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민간기계수주의 경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전분기대비 7.0% 증가하였고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1.6%p 상승한 16.8%로 나타났음.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2.5	1.6	1.2	1.9	8.0	1.5	-0.1	1.3	1.5	5.0	0.7
소비자신뢰지수 ²⁾	66.9	61.5	50.3	53.6	58.1	67.5	65.3	65.7	69.7	67.1	58.4
민간기계수주액 ³⁾ (%)	3.8	6.7	-0.7	2.7	17.2	-3.3	-2.6	-7.7	7.0	-4.2	15.8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7.6	-1.8	7.2	10.5	4.5	5.4	2.9	5.2	16.8	27.8	-7.3
주택가격지수 ⁴⁾	141.7	141.0	139.8	137.5	140.0	137.0	140.1	142.5	145.2	141.2	147.9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생산부문〉

■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 4/4분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음.

- 산업생산지수는 10월 중 재정절벽 우려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으로 둔화되었으나 11월과 12월 회복하여 4/4분기 0.6% 상승하였음.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 50.9에서 50.6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3년 1월에는 53.1로 상승하였음.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0.6	0.2	1.2	1.2	3.4	1.3	0.7	0.1	0.6	3.6	0.1
산업생산가동률 ²⁾	76.2	76.3	77.1	77.9	77.9	78.7	78.9	78.6	78.9	78.8	79.2
ISM제조업PMI	59.4	56.2	52.9	52.2	55.2	53.0	52.3	50.9	50.6	51.7	53.1
경기선행지수 ³⁾	90.2	91.5	91.5	91.8	91.3	92.7	93.0	93.0	93.5	93.1	94.3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4/4분기 실업률은 하락하고 일자리 수도 증가하였으나,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함께 증가했음.

○ 실업률은 7.8%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포괄적실업률도 14.4%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4%p 하락하였음.

- 2013년 1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7.9%, 포괄적 실업률은 14.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임.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감은 3/4분기 30만 3,000명에서 46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는 3/4분기 37만 1,000명에서 37만 8,000명으로 7,000명 증가하였음.

■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1.9%를, 2013년 1월에는 1.6%를 기록하였음.

- 4/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여 상승폭이 0.1%p 감소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1.7%로 나타났으나 1월에는 1.4%에 그쳤음.

- 근원생산자 물가상승률은 4/4분기 2.1%, 2013년 1월 1.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 물가 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¹⁾ (%)	9.0	9.0	9.1	8.7	9.0	8.3	8.2	8.0	7.8	8.1	7.9
포괄적 실업률(u-6) ²⁾ (%)	15.9	16.0	16.2	15.6	15.9	14.9	14.7	14.8	14.4	14.7	14.4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40.1	32.4	35.7	40.4	28.4	47.6	21.2	30.3	46.6	188.2	11.9
실업수당 청구자수 ⁴⁾ (만 명)	41.4	42.4	41.0	39.0	40.9	36.9	38.2	37.1	37.8	37.5	35.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2.1	3.4	3.8	3.3	3.2	2.8	1.9	1.7	1.9	2.1	1.6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1	1.5	1.9	2.2	1.7	2.3	2.3	2.0	1.9	2.1	1.9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4.9	6.9	6.9	5.4	6.0	3.4	1.0	1.5	1.7	1.9	1.4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1.8	2.2	2.7	3.0	2.4	3.0	2.7	2.5	2.1	2.6	1.8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나. 유로경제

2012년 4/4분기 유로경제는 재정위기 지속으로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하여 전분기에 비해 악화되었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4/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고정자본투자,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0.6%를 기록함.

- 민간소비 지출은 고용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부채조정 등으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고정자본투자는 수출과 내수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1.1% 감소함.
- 정부지출은 재정긴축으로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

- 수출은 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0.9% 감소하였고, 수입 역시 전분기대비 0.9% 감소하였음.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EA17 GDP	0.3	2.0	0.6	0.2	0.1	-0.4	1.4	-0.1	-0.2	-0.1	-0.6	-0.6	
민간소비	0.4	0.9	0.0	-0.4	0.2	-0.5	0.1	-0.2	-0.5	-0.1	-0.4	-1.3	
고정자본투자	-0.7	-0.1	1.9	-0.2	-0.3	-0.5	1.5	-1.4	-1.7	-0.8	-1.1	-4.1	
정부지출	0.0	0.7	0.1	0.1	-0.3	0.0	-0.1	0.2	-0.1	-0.1	-0.1	0.0	
수출	1.5	11.2	1.3	1.2	1.3	0.0	6.3	0.5	1.6	1.0	-0.9	2.6	
수입	1.5	9.6	0.7	0.4	0.5	-1.4	4.2	-0.4	0.6	0.1	-0.9	-1.0	

자료: Eurostat(2013, 3).

■ 지역별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악화되었음.³⁾

- 4/4분기 전분기대비 독일과 영국 경제 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각각 -0.6%, -0.3%를 기록하였음.
- 프랑스(-0.3%), 이탈리아(-0.9%)와 스페인(-0.8%)의 경우 민간소비 감소와 투자 침체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생산 및 내수부문〉

■ 2012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2.4% 감소하였음.

■ 2012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1.7% 감소하였으며 금융시장 불안정과 고용여건 악화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음.⁴⁾

3) 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표 12〉 유럽 주요국 실질 GDP증가율 참조.

-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87.0을 나타냈으며 2013년 1월에는 2.5p 증가한 89.5를 기록하였음.
- 4/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26.2를 나타냈으며 2013년 1월에는 2.3p 증가한 -23.9를 시현함.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유로지역 ESI ¹⁾	106.9	105.2	98.4	94.5	102.0	95.4	92.4	87.4	87.0	90.5	89.5
소매판매 증가율 ²⁾ (%)	-0.1	-0.4	1.2	-0.5	-0.6	-0.3	-0.7	0.1	-1.7	-1.7	1.2
소비자신뢰지수 ³⁾	-11.0	-10.7	-15.9	-20.6	-14.6	-19.9	-19.5	-23.8	-26.2	-22.3	-23.9
산업생산 증가율 ⁴⁾ (%)	2.8	1.5	0.3	-1.6	3.1	-0.5	-0.5	0.2	-2.4	-2.1	-0.4
실업률 ⁵⁾ (%)	9.9	10	10.2	10.6	10.2	10.9	11.3	11.5	11.8	11.4	11.9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2.5	2.7	2.7	3.0	2.7	2.7	2.5	2.5	2.3	2.5	2.0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5) 계절조정.

6)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Eurostat.

〈고용과 물가〉

■ 2012년 4/4분기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북유럽, 동유럽은 소폭 상승하였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로지역 주요국의 2012년 4/4분기 실업률은 7.8%로 3/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북유럽과 동유럽의 4/4분기 실업률은 각각 6.7%, 10.5%로 나타났으며 남유럽의 경우 20.2%를 기록함.

4) 〈표 12〉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참조.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2년 2/4	7.9	6.6	10.1	18.7	2.4	1.5	3.5	2.4
2012년 3/4	7.8	6.6	10.3	19.5	2.5	1.7	4.1	2.6
2012년 4/4	7.8	6.7	10.5	20.2	2.4	1.9	4.3	2.3

주: 1)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

■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3/4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주요국과 남유럽에서는 하락하였음.

-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대비 0.1%p 감소한 2.4%를 기록하였음.
- 북유럽과 동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9%, 4.3%를 나타냈으며 남유럽의 경우 상승폭이 3/4분기보다 0.3%p 감소하여 2.3%를 기록함.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GDP	0.6	4.2	1.2	0.5	0.4	-0.1	3.0	0.5	0.3	0.2	-0.6	0.7
민간소비	0.6	0.8	0.7	-0.5	1.3	-0.3	1.7	0.1	0.2	0.0	0.1	0.6
고정자본투자	-0.9	5.6	4.3	0.2	0.4	0.8	6.4	-1.0	-1.9	-0.4	-0.7	-1.9
수출	2.0	13.4	2.7	0.5	2.1	-0.5	7.9	0.7	3.3	1.5	-2.0	4.3
수입	1.6	10.9	2.3	2.2	1.7	-0.4	7.5	-0.7	2.3	0.6	-0.6	2.2
프랑스 GDP	0.4	1.7	0.8	0.0	0.2	0.1	1.7	-0.1	-0.1	0.2	-0.3	0.0
민간소비	0.5	1.5	0.1	-0.9	0.3	-0.1	0.3	0.2	-0.3	0.1	-0.1	-0.1
고정자본투자	0.3	1.0	1.4	0.3	0.3	1.3	3.5	-1.0	0.3	-0.4	-0.8	0.0
수출	1.0	9.2	1.5	0.8	0.8	1.7	5.5	-0.1	0.4	1.0	-0.6	2.5
수입	0.3	8.4	3.3	-1.0	0.0	-0.9	5.2	-0.1	1.6	-0.2	-1.2	-0.3
이탈리아 GDP	0.2	1.7	0.1	0.3	-0.1	-0.8	0.4	-0.9	-0.7	-0.2	-0.9	-2.4
민간소비	0.5	1.5	0.0	-0.2	-0.7	-1.1	0.1	-1.5	-1.1	-1.1	-0.6	-4.2
고정자본투자	-1.1	0.5	0.4	-0.3	-1.3	-2.1	-1.4	-3.7	-1.8	-1.2	-1.2	-8.0
수출	3.3	11.2	0.6	0.4	1.2	0.9	6.6	-0.6	1.0	1.2	0.3	2.2
수입	4.9	12.3	-1.3	-2.1	-1.1	-2.4	1.1	-3.6	-0.6	-1.7	-0.9	-7.8
스페인 GDP	0.1	-0.3	0.3	0.2	0.0	-0.5	0.4	-0.4	-0.4	-0.3	-0.8	-1.4
민간소비	1.1	0.7	-0.7	-0.2	-0.6	-1.0	-1.0	0.5	-1.1	-0.5	-2.0	-2.1
고정자본투자	-1.3	-6.2	-1.0	-1.2	-0.7	-3.3	-5.3	-2.5	-3.1	-1.3	-3.9	-9.1
수출	1.8	11.3	1.0	1.2	3.5	0.1	7.6	-2.6	1.8	5.1	-0.9	3.1
수입	1.1	9.2	-1.0	-2.0	0.8	-2.8	-0.9	-2.0	-1.3	2.7	-4.8	-5.0
영국 GDP	-0.4	1.8	0.5	0.1	0.6	-0.1	1.0	-0.1	-0.4	0.9	-0.3	0.3
민간소비	0.3	1.3	-1.3	-0.1	-0.2	0.2	-1.0	0.3	0.7	0.1	0.1	1.0
고정자본투자	-1.7	3.5	-2.0	-0.4	0.3	-0.4	-2.9	0.6	2.0	-0.6	-0.4	1.4
수출	3.3	6.4	1.4	-1.9	0.0	2.9	4.6	-1.5	-1.3	1.7	-1.5	-0.3
수입	1.5	8.0	-2.6	-0.2	0.1	1.6	0.5	0.0	1.3	0.3	-1.2	2.0

자료: Eurostat; Bloomberg.

다. 일본경제

2012년 4/4분기 일본경제 성장률은 설비투자 및 수출의 부진에도 민간소비가 증가하여 플러스로 전환하였음.

〈최근 동향〉

■ 2012년 4/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및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주택투자 및 정부지출 증가폭이 확대되어 소폭 플러스로 전환하였음.

- 민간소비 지출은 9월 말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종료에 따른 부진이 10월 이후 다소 완화 되면서 전분기대비 0.5% 증가함.
- 주택투자 지출은 10월 친환경 주택 지원제도 종료에 임박하면서 전분기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 지출은 수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1.5% 감소함.
- 공공투자는 지진 피해 복구 사업 관련 지출이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보다 0.8%p 낮은 1.8% 증가하는데 그침.
-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중국의 일본제품(특히 자동차)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국내 수요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2.3% 감소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4	4.7	-1.9	-0.7	2.5	0.1	-0.6	1.5	-0.2	-0.9	0.1	2.0
민간소비	-0.3	2.8	-1.4	0.9	1.4	0.5	0.5	1.2	-0.0	-0.5	0.5	2.4
설비투자	-2.1	0.3	0.2	-0.2	2.2	7.3	3.3	-2.5	-0.1	-3.3	-1.5	2.1
주택투자	4.5	-4.5	2.1	-2.8	4.2	-0.1	5.5	-1.7	2.2	1.7	3.5	2.9
정부지출	0.6	1.9	0.1	0.4	0.1	0.5	1.5	1.5	0.4	0.4	0.7	2.7
공공투자	-1.0	0.7	-4.0	0.6	-1.7	-1.3	-7.5	8.5	6.2	2.6	1.8	12.5
수출	-0.2	24.4	-0.5	-6.5	8.8	-3.8	-0.4	3.4	0.0	-5.1	-3.7	-0.3
수입	0.3	11.1	1.4	-0.3	3.5	1.0	5.9	2.1	1.7	-0.5	-2.3	5.3

주: 1) Government Consumption,

2) Public Investment,

자료: 일본 내각부(2013. 3).

〈생산 및 내수부문〉

■ 2012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자동차, 일반 기계류 등 주요 부문에서 위축되었으나 전자부품, 금속제품 등에서 개선되어 전분기대비 1.9% 하락하는데 그침.

■ 2012년 4/4분기 소비는 전분기대비 위축됨.

- 소매판매는 전분기보다 0.2%p 감소한 0.3% 증가에 그쳤음.
- 반면 2013년 1월과 2월에는 0.9%, 1.1% 증가하는 등 소매판매가 늘어남.
- 소비자신뢰지수는 39.4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7p 하락함.
- 반면 2013년 1월과 2월에는 43.3, 44.3을 나타내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음.

■ 2012년 4/4분기 투자는 대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민간기계수주액 감소로 부진이 심화됨.

- 4/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해외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줄어들었음.
- 한편 주택착공호수는 10월 친환경 주택 지원제도 종료에 임박하면서 착공호수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 늘어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1.5	-4.2	5.4	0.4	-2.3	1.3	-2.0	-4.2	-1.9	-0.3	1.0	-
소매판매 증가율 ²⁾ (%)	-0.8	-1.7	-1.0	0.8	-1.2	5.2	3.1	0.5	0.3	2.3	0.9	1.1
소비자신뢰지수 ³⁾	40.5	34.4	37.3	38.5	37.7	40.0	40.4	40.1	39.4	40.0	43.3	44.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3.5	4.2	8.1	-4.5	2.6	3.7	6.2	-1.1	15.0	5.8	3.9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17.7	10.1	2.0	0.4	7.6	4.6	-4.1	-8.6	-6.7	-3.3	-27.3	-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년동기(월)대비.

3) 기준치=50,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2012년 4/4분기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은 증가하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었음.

- 실업률은 4.2%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하였음.
- 유효구인배율은 서비스업계의 구인 증가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되어 0.82배를 기록하였음.

■ 2012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2% 하락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하락 폭이 확대되며 -0.3%를 기록함.
-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4/4분기와 2013년 1월 각각 0.5%, 0.7% 하락하였음.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4.8	4.7	4.4	4.5	4.6	4.5	4.4	4.3	4.2	4.4	4.2
유효구인배율(배) ¹⁾	0.61	0.61	0.65	0.71	0.65	0.75	0.80	0.81	0.82	0.80	0.85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5	-0.4	0.1	-0.3	-0.3	0.3	0.2	-0.4	-0.2	0.0	-0.3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3	-0.9	-0.5	-1.1	-0.9	-0.7	-0.5	-0.6	-0.5	-0.6	-0.7

주: 1) 구인수/구직자수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라. 중국경제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중국경제 성장률은 미국 등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7.8%를 기록함.

〈최근 동향〉

■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7.8%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는 체감경기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에 그쳤고,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하여 성장세가 전분기보다 확대되었으나 2011년 4/4분기에 비해서는 부진한 수준임.
- 수출은 對미국(5.4%), 對아세안(29.7%)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對 EU(-7.9%)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9.4% 증가하였고 수입도 3/4분기보다 1.3%p 높아진 2.8% 증가함.
- 중국정부가 수출세환급, 수입보조금, 신용대출 확대 등의 수출입 진흥책을 도입한 것도 수출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⁵⁾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 ¹⁾	2.2 (9.7)	2.5 (9.5)	2.4 (9.1)	1.7 (8.9)	9.3	1.5 (8.1)	2.0 (7.8)	2.1 (7.7)	2.0 (7.8)	7.8	-	-
고정자산투자 ²⁾ (%)	25.0	25.6	24.9	23.8	23.8	20.9	20.4	20.5	20.6	20.6	21.2	21.2
수출 증가율(%)	25.3	22.4	20.7	14.4	20.7	8.9	10.5	4.5	9.4	7.9	25.0	21.8
수입 증가율(%)	32.6	23.2	24.7	20.9	25.3	9.9	6.5	1.5	2.8	4.3	28.8	-15.2

주: 1) 전기(월)대비,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5) 이소양(2012), 「대의 수출입 대폭 상승, 무역수지흑자 확대 지속」, KIRI Weekly, 보험연구원.

〈내수부문〉

■ 2012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과 정부의 가전 및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하여 전분기 13.5%보다 1.4%p 상승하였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105.0을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5.5p 상승함.

○ 기업체감경기지수는 120.4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3.9p 상승함.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6.3	17.2	17.3	17.5	17.1	15.0	13.9	13.5	14.9	14.5	12.3 ²⁾	
소비자신뢰지수	102.4	106.8	104.7	99.3	103.8	103.0	102.2	99.5	105.0	102.4	104.5	108.2
기업체감경기지수 ³⁾	138.9	132.4	130	120.9	130.6	123.0	121.2	116.5	120.4	120.3	-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2013년 1~2월 누계기준.

3) ECI(Entrepreneur Expectation Index): 0~200 사이로 산출되며 100~200 사이일 경우 기업 체감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 사이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생산부문〉

■ 2012년 4/4분기 생산부문 성장세는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매판매 증가, 제조업 부문 재고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확대됨.

○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3/4분기보다 0.9%p 증가한 10.0%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도 9.9%를 나타냄.

○ 4/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⁶⁾는 50.5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1월에는 50.4, 2월에는 50.1로 다시 하락하고 있음.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14.9	13.9	13.8	12.8	13.8	11.7	9.5	9.1	10.0	10.0	9.9 ¹⁾	
구매자관리지수 ²⁾	52.8	51.9	50.9	49.9	51.3	51.5	51.3	49.7	50.5	50.8	50.4	50.1

주: 1) 2013년 1월~2월 누계 기준.

2) PMI,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2012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파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2.1%를 기록하였음.

○ 소비자물가는 2013년 1월에는 2.0% 상승하였으며 2월에는 춘절 효과로 인한 식료품 수요 급증으로 3.2% 상승하였음.

■ 4/4분기 생산자물가는 수요 감소와 에너지가격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3% 하락하였음.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월과 2월 각각 -1.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5.7	6.3	4.6	5.4	3.8	2.9	1.9	2.1	2.6	2.0	3.2
생산자물가 상승률(%)	7.0	6.9	7.1	3.1	6.1	0.1	-1.4	-3.3	-2.3	-1.7	-1.6	-1.6

주: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2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 하락세를 이어감.

■ 2012년 4/4분기 실질GDP는 재화수출과 민간소비가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5%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물가안정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주택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3/4분기보다 1.0%p 상승한 2.7% 증가함.
- 설비투자는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5.2%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4.2% 줄어듦.
- 재화수출은 3/4분기에 비해 1.5%p 상승한 4.7%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재화수입은 1.4%p 상승한 1.7% 증가율을 보였음.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3.6 (0.8)	3.3 (0.3)	3.7	2.8 (0.8)	2.4 (0.3)	1.6 (0.0)	1.5 (0.3)	2.0
- 민간소비	2.1	1.2	2.4	1.3	1.0	1.7	2.7	1.7
- 설비투자	1.1	-3.6	3.6	8.8	-3.5	-6.9	-5.2	-1.9
- 건설투자	-3.6	-1.7	-4.7	-0.4	-3.1	-0.3	-4.2	-2.2
- 재화수출 ³⁾	9.8	3.2	9.1	4.7	2.4	3.2	4.7	4.2
- 재화수입 ³⁾	7.9	3.4	6.1	4.4	-0.1	0.3	1.7	2.5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2011년 수치는 확정치, 2012년 수치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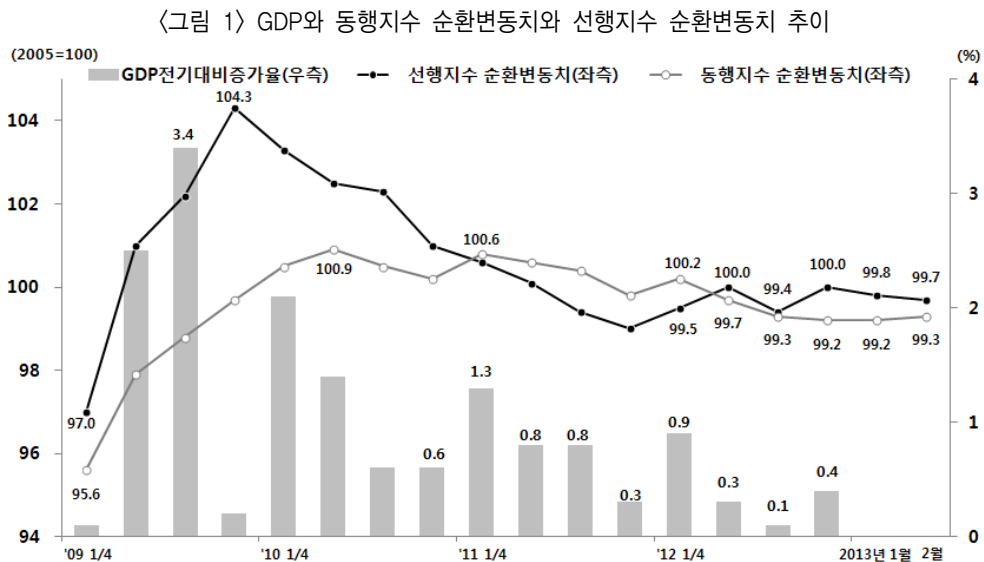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2012년 4/4분기부터 2013년 2월까지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2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0.5%, 0.3% 상승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에 비하여 상승하였으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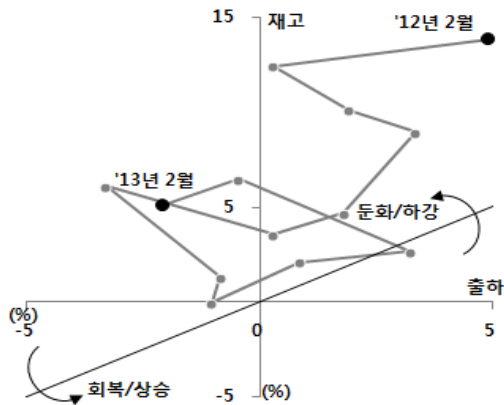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6p 상승한 112.3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1p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음.

- 2월 경기선행지수는 건설수주액 증가와 소비자기대지수 상승으로 전월대비 0.3p 상승한 110.4를 기록하였으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 등이 감소하여 전월보다 0.1p 하락한 99.7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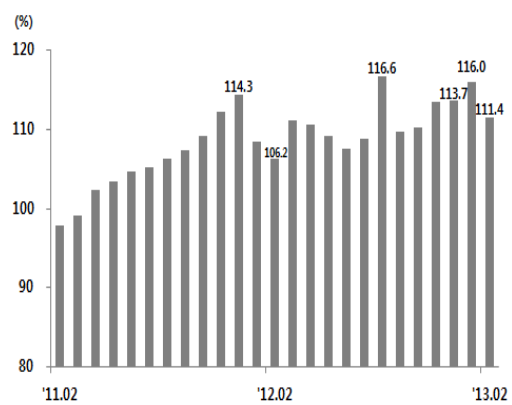
주: 2012년 12월, 2013년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⁷⁾의 경우 2013년 2월 제조업 출하 감소폭은 -2.1%로 2013년 1월 -0.5%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재고 증가율은 전월 6.5%에서 5.1%로 하락하였음.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11.4%로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음.

■ 2013년 2월 소매판매지수의 경우 내구재 수요는 감소한 반면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수요는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하는데 그쳤음.⁸⁾

○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7.5%, 2013년 1월 3.1%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1.7% 감소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비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4/4분기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으나 1월에는 1.3% 감소, 2월에는 2.6% 증가하였음.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4/4분기 1.0% 증가하였으나 1월에는 기저효과로 6.6% 감소하였으며 2월에는 3.4% 증가하는데 그쳤음.

7) 2012년 12월, 2013년 1월, 2월의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8) 2013년 1월과 2월 소매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1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승용차 판매가 급감(전월비 -13.8%)하였기 때문이고, 2월에는 폭설 등에 따른 차량연료 판매가 급감(전년동월비 기준으로 휘발유판매증가율이 1월 2.9%에서 2월 -8.0%로 크게 감소, 경유판매증가율은 1월 11.9%에서 2월 -11.5%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1〉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¹⁾	2월 ¹⁾
소매 판매	2.6	4.5	2.8	1.4	2.6	2.5	2.3	-3.1	1.8
- 내구재	4.4	10.6	4.4	2.9	6.6	7.5	5.3	3.1	-1.7
* 승용차	-5.6	7.0	-5.2	1.5	-1.8	15.5	2.4	14.3	-4.5
- 준내구재	1.2	3.7	-0.3	-1.0	-3.5	0.3	-1.1	-1.3	2.6
- 비내구재	2.4	2.1	3.3	1.6	3.0	1.0	2.3	-6.6	3.4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였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감소세가 확대되어 21.4% 축소되었음.

○ 2013년 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가 24.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가 22.7% 감소하여 15.6% 줄어들었으며 2월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투자가 위축되어 18.2% 감소하였음.

○ 국내기계수주 감소세는 2012년 4/4분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발주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3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5.4%, 32.7%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음.

〈표 22〉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¹⁾	2월 ¹⁾
설비투자지수	-0.1	4.0	10.7	-2.7	-8.2	-6.9	-2.0	-15.6	-18.2
- 기계류	-1.7	2.7	12.8	-2.6	-7.8	-10.3	-2.2	-22.7	-19.1
- 운송장비	7.2	9.8	2.0	-3.1	-10.1	7.2	-1.1	24.9	-14.4
국내기계수주	6.4	7.6	-1.1	-19.8	-10.4	-21.4	-13.4	-6.0	-32.7
건설투자	-2.1	-5.0	1.5	-2.1	-0.2	-4.1	-1.5	-	-
- 건설기성 ²⁾	-1.0	-6.4	-4.9	-9.7	-2.3	-5.6	-5.8	8.9	5.1
건축	-2.2	-6.9	-3.2	-12.5	-6.2	-7.6	-7.6	7.1	1.9
토목	0.3	-5.6	-7.1	-6.1	3.2	-3.4	-3.5	11.2	9.6
- 국내건설수주	25.5	6.1	33.3	-0.7	-13.6	-33.1	-8.9	-52.7	-46.4
건축	45.3	14.0	27.4	-7.0	-7.1	-27.4	-8.7	-65.1	-7.1
토목	-0.1	-6.0	42.1	12.5	-26.3	-43.7	-9.3	-22.6	-72.6

주: 1) 잠정치.

2) 2012년 12월 수치도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4/4분기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공사는 7.6%, 토목공사는 3.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6% 축소되었으며, 국내건설수주도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각각 27.4%, 43.7% 감소하여 3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임.

- 2013년 1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각각 7.1%, 11.2% 증가하는데 힘입어 8.9% 확대되었으나, 2월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증가폭이 축소되어 5.1%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2012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음.
 - 1월에는 건축과 토목 각각 65.1%, 22.6% 감소하여 52.7%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2월에는 건축 7.1%, 토목 72.6% 감소하여 46.4% 감소하였음.

〈대외거래〉

■ 2013년 2월 수출⁹⁾은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한 423억 달러, 수입⁸⁾은 10.6% 감소한 4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억 2,4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음.

- 수출은 전 품목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식료 및 직접소비재(-16.1%)와 경공업제품(-13.3%)의 감소폭이 컸으며, 중화학 공업품(-8.9%)과 원료 및 연료(-2.9%)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 수입은 소비재(2.6%)를 제외한 원자재(-9.5%)와 자본재(-17.7%)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9) 수출과 수입은 2012년 2월 수치까지 확정치임.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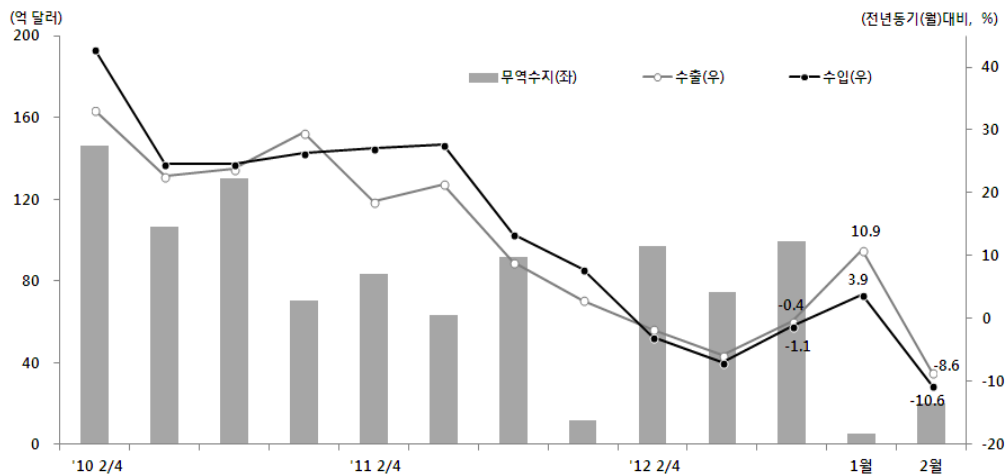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5.1	11.2	24.5	14.2	1.8	4.2	0.6	4.6	35.6	-16.1
	원료 및 연료	66.1	40.2	60.2	23.4	-6.8	2.8	9.2	6.2	10.2	-2.9
	경공업 제품	28.7	11.7	19.2	10.2	3.2	3.2	-0.2	3.9	13.5	-13.3
	중화학 공업품	15.5	6.3	15.2	-0.2	-2.1	-7.2	-1.9	-2.9	10.4	-8.9
	전체	20.8	9.7	19.3	3.0	-1.7	-5.2	-0.4	-1.3	10.9	-8.6
	금액(억달러)	1,413	1,404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457	423
수입	소비재	32.4	14.6	25.6	6.3	-1.8	-2.3	6.4	2.0	13.0	2.6
	원자재	38.2	21.0	31.4	8.9	-0.8	-7.0	-0.8	0.1	2.1	-9.5
	자본재	8.4	-0.7	7.9	4.8	-6.9	-10.1	-3.8	-4.2	4.7	-17.7
	전체	27.7	13.4	23.3	7.6	-2.6	-7.4	-1.1	-0.9	3.9	-10.6
	금액(억달러)	1,350	1,312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452	403
무역수지		63.0	91.6	308	11.8	97.0	74.7	99.4	282.9	5.0	20.2

주: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그림 4〉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 2013년 2월 수출입은 주요 지역에서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음.

- 미국(-11.4%), 일본(-17.4%), EU(-15.4%)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동남아(-9.3%), 중동(-5.7%) 등으로의 수출 감소폭보다 컸음.
- 수입 감소폭은 미국(-24.6%), 중남미(-38.5%) 등이 가장 컸으며 EU(-3.8%), 중동(-1.8%)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24〉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월	증감률	1~2월	증감률	2월	증감률	1~2월	증감률
미 국	49.8	-11.4	99.8	2.4	31.2	-24.6	66.9	-14.6
일 본	29.0	-17.4	64.1	-5.4	49.7	-12.9	100.0	-8.7
E U	38.6	-15.4	76.2	-9.8	40.5	-3.8	87.4	8.1
동남아	93.0	-9.3	193.3	-1.2	52.4	-12.3	112.7	-1.4
중 동	26.5	-5.7	56.8	-0.7	113.6	-1.8	224.1	-0.6
중 국	104.0	-1.0	218.2	7.5	55.2	-9.7	128.3	-0.9
중남미	26.2	-15.9	56.4	-8.7	12.8	-38.5	30.6	-22.0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2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0.1%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0.8% 증가하는데 그쳤음.

- 2012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0.2%), 자동차(-2.3%)에서 감소하였으나 ICT(5.3%)에서 증가하여 0.1% 감소하였고, 2013년 1월에는 7.6% 증가로 전환하였다가 2월에 9.3% 감소하였음.
- 2012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가중치가 가장 큰 도매 및 소매업(0.4%)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0.6%), 부동산 및 임대업(-1.4%) 등이 감소하였음.
- 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으며 2월 증가율은 미미하였음.

〈표 25〉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¹⁾	2월 ¹⁾
광공업	3.3	5.9	3.6	1.1	-1.0	-0.1	0.8	7.6	-9.3
- 제조업	3.5	6.0	3.8	1.0	-1.1	-0.2	0.8	8.0	-9.8
- 자동차	13.4	14.6	10.7	3.2	-11.6	-2.3	-0.1	18.7	-16.5
- ICT	5.5	6.7	4.1	-2.3	-5.5	5.3	0.4	6.7	-7.2
서비스업	2.8	3.2	2.6	1.5	1.5	0.8	1.6	1.3	0.0
- 도매 및 소매업	2.6	3.8	1.9	0.1	0.5	0.4	0.7	-2.5	0.6
- 운수업	1.8	4.5	0.8	0.8	1.2	2.1	1.2	4.9	-0.5
- 숙박 및 음식점업	-2.5	-1.3	-2.0	-3.3	1.1	-0.6	-1.2	2.7	-4.7
- 금융 및 보험업	5.5	6.8	5.9	1.6	1.8	2.2	2.8	4.5	-1.4
- 부동산 및 임대업	-3.4	-7.6	-6.0	-3.6	-6.0	-1.4	-4.3	0.4	-3.3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2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추세를 지속하였고,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한편, 2012년 4/4분기에도 가계소득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실질 소비지출 증가세는 미약하여 가계흑자액은 소폭 늘어났음.

■ 2012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쳤는데 이는 국내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부진 지속과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임.

○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3.4%, 공업제품은 1.7%, 전기·수도·가스는 3.6%, 집세는 3.4%, 공공서비스는 1.1%, 개인서비스는 0.7%로 나타남.

○ 2013년에 들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어 1월 1.5%, 2월 1.4%를 기록하였음.

- 2013년 접어들어 전기·수도·가스, 개인·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과 집세의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음.

■ 2012년 4/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2p 높아진 97.1로 나타났으나 2013년 들어 106.6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됨.

〈표 26〉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기대지수 ¹⁾	95.5	99.6	94.0	104.2	95.1	97.1	97.6	106.6	106.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0	4.0	3.0	2.4	1.6	1.7	2.2	1.5	1.4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5.4	5.7	4.1	4.0	2.2	2.2	3.0	1.8	1.6
- 농축수산물	2.8	9.2	2.3	5.8	1.3	3.4	3.1	2.1	3.3
- 공업제품	5.8	4.9	4.3	3.5	1.8	1.7	2.9	1.3	0.7
- 전기·수도·가스	6.8	4.8	5.7	4.6	6.1	3.6	5.0	4.4	4.2
서비스	2.7	2.7	2.2	1.3	1.1	1.4	1.5	1.3	1.2
- 집세	5.0	4.0	5.0	4.5	4.0	3.4	4.1	3.2	3.1
- 공공서비스	-1.0	-0.4	-0.2	0.7	0.6	1.1	0.5	1.2	1.1
- 개인서비스	3.8	3.7	2.4	0.6	0.6	0.7	1.1	0.8	0.9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2년 4/4분기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총취업자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3/4분기에 비해 0.7%p 하락한 1.4% 증가하는데 그쳤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음.

○ 2012년 4/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고, 2013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1.4%, 0.8% 늘어남.

- 청년 취업자 수는 4/4분기 2.1%, 2013년 1월 2.1%, 2월 3.6% 감소하며 2012년 2/4분기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4/4분기 고용률은 59.4%, 2013년 1월 57.4%, 2월 57.2%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실업률은 같은 기간 2.8%, 3.4%, 4.0%로 상승세를 나타냈음.

- 청년실업률은 2012년 4/4분기에 7.0%를 나타냈으며 2013년 1월에는 7.5%, 2월에는 9.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감소한 반면,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음.

- 2012년 4/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으며, 2013년 1월과 2월 각각 1.4% 감소하였음.
- 2012년 4/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2013년 1월에도 3.9%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증가폭이 줄어들어 1.9% 늘어나는데 그쳤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4/4분기에 이어 2013년 1월과 2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2012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4/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으며 2013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2.8%, 5.6% 감소하였음.
 - 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수는 4/4분기 2.3% 증가하였으며 2013년 1월 2.9%, 2월 3.3%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2.0	1.7	2.0	1.8	2.1	1.4	1.8	1.4	0.8	
- 청년취업자	-0.5	-0.9	0.0	-0.2	-1.4	-2.1	-0.9	-2.1	-3.6	
고용률	59.4	59.1	57.8	60.2	60.0	59.4	59.4	57.4	57.2	
실업률	2.9	3.4	3.8	3.3	3.0	2.8	3.2	3.4	4.0	
- 청년실업률	7.1	7.6	8.2	8.1	6.8	7.0	7.5	7.5	9.1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5	-1.6	-2.6	-1.4	0.1	-0.2	-0.9	-1.4	-1.4	
광공업	-2.0	1.5	-2.7	-1.6	2.1	3.4	0.3	3.9	1.9	
- 제조업	-1.8	1.6	-2.5	-1.6	2.1	3.5	0.3	3.9	1.9	
SOC 및 기타서비스업	3.2	2.1	3.4	2.8	2.2	1.1	2.4	1.0	0.7	
- 건설업	4.0	-0.1	4.8	1.9	0.9	-2.2	1.3	-2.8	-5.6	
- 도소매음식숙박	1.8	0.4	1.8	2.6	2.1	1.1	1.9	-0.1	-0.5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5.5	4.3	4.5	2.0	-0.4	-0.4	1.4	-0.3	-0.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1	2.9	3.7	3.4	3.5	2.3	3.2	2.9	3.3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흑자액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중 월평균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하였음.

-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9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도 3.6% 늘어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실질 소비지출도 0.3% 증가하는데 그쳤음.
 - 최근의 가계소비성향 부진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원인임.¹⁰⁾
- 2012년 4/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6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였고, 흑자액도 94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늘어남.
 - 4/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71.8%로 전년동기보다 3.0%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8.2%로 전년동기대비 3.0%p 상승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388.3	384.2	412.4	394.2	414.2	409.3	407.7
- 증가율	7.2	5.8	6.9	6.2	6.3	5.4	6.1
- 실질소득 증가율	3.3	1.9	3.8	3.7	4.6	3.6	3.8
처분가능소득(만 원)	318.0	311.9	333.3	321.9	335.0	336.1	331.7
- 증가율	7.2	5.5	6.8	6.8	6.3	5.7	6.4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38.0	239.3	256.8	238.6	246.7	241.2	245.7
- 증가율	3.9	5.0	5.3	3.6	1.0	1.4	2.7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0.1	1.0	2.2	1.1	-0.7	0.3	0.5
흑자액(만 원)	80.1	72.7	76.5	83.3	88.3	94.8	86.0
- 증가율	21.7	8.3	12.2	17.5	24.8	18.5	18.4
평균소비성향	74.8	76.7	77.0	74.1	73.6	71.8	74.1
흑자율	25.2	23.3	23.0	25.9	26.4	28.2	25.9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10) 한국은행(2013. 1), 「한국은행 경제전망」.

3. 금융경제

〈금리〉

2013년 1/4분기 국고채(3년) 금리는 국고채 매수 지속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분기 말에는 사상 최저치인 2.5%대 수준까지 하락함. 기준금리는 완만한 경기 개선 전망으로 2.75%로 동결 유지되었으나 정책당국은 향후 경기 전망에 따라 변동시킬 여지를 남김.

■ 기준금리는 2012년 4/4분기 중 0.25%p 인하된 이후 2013년 1/4분기 말까지 2.75%로 동결 유지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이 더디지만 이미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완만한 글로벌 경기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다고 밝힘.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 하방 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1/4분기 국고채(3년) 금리는 국고채 매수 지속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평균 2.81%에서 2.69%로 12bp 하락하였음.

- 1월 국고채 금리는 월 초 사상최저치(1/10일 2.70%)까지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소폭 반등하여 월 평균 2.75%를 기록함.
- 2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의 국고채 현·선물 순매수,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강화 등으로 2.70%로 하락함.
- 3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및 채권 대기 매수세 지속으로 사상 최저치(3/28일 2.45%)를 경신하면서 월 평균 2.60%를 기록함.

■ 2013년 1/4분기 CD(91일) 금리는 'CD - 은행채'간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저가 매수로 하락하였으며, 신용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축소되었음.

- 'CD - 은행채'간 스프레드는 2012년 4/4분기 3bp에서 2013년 1/4분기 11bp로 확대되었고 CD 금리는 2012년 4/4분기 평균 2.89%에서 2013년 1/4분기 평균 2.83%로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6bp 낮아짐.

- ‘국고채(3년) - CD’ 간 스프레드는 1/4분기 중 국고채 금리(3년) 하락폭 확대로 2012년 4/4분기 평균 -8bp에서 -0.14bp로 넓어짐.
- ‘회사채(AA-) - 국고채(3년)’간 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가 고금리 채권 선호로 하락하여 전분기 평균 50bp에서 38bp로 축소되었음.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구분	2011 1/4	2012 1/4	2012 4/4	2013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3.00	3.25	2.75	2.75	0.00	-0.50
CD(91일)	3.14	3.54	2.89	2.83	-0.06	-0.71
국고채(3년)	3.79	3.46	2.81	2.69	-0.12	-0.77
회사채(3년, AA-)	4.58	4.28	3.31	3.07	-0.24	-1.21
스프레드(국고채-CD)	0.65	-0.08	-0.08	-0.14	-0.06	-0.06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79	0.82	0.50	0.38	-0.12	-0.44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환율〉

2013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84.2원으로 4/4분기 1,089.9원 보다 5.7원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분기 말로 갈수록 유로존 불안 요인 및 북한 핵 관련 리스크 확대로 점차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1/4분기 초 미국의 양적 완화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유로존 불안 요인 확대, 북한 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약세 국면으로 전환됨.

- 1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로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함.
- 2월 원/달러 환율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미국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으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음.

- 3월 원/달러 환율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키프로스 신용등급 강등 등 유로존 불안 요인 확대,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 지속 등으로 전월대비 원화 약세 국면이 심화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131.2	1,152.1	1,132.9	1,089.9	1,084.2	1,066.2	1,086.3	1,100.2
엔/달러	79.4	80.1	78.6	81.3	92.6	89.3	93.3	95.2
달러/ 유로	1.312	1.283	1.251	1.297	1.321	1.331	1.333	1.298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 1/4분기 중 달러화는 유로존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유로화에 대한 강세를 점차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에 강세가 지속됨.

- 1월 달러화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완화 국면 지속으로 유로화에 대해 전월대비 약세를 보인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에 강세를 보임.
- 2월 달러화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정책적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유로화에 대해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상향되면서 강세를 지속함.
- 3월 달러화는 키프로스 불확실성 확대에 유로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의 일본은행 영향력 확대에 강세가 지속됨.

〈주가지수〉

2013년 1/4분기 주가지수는 2월에 강세로 반전하여 2,000 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연초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완화되었으나, 이후 북한 핵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1,949 포인트로 마감함.

- 2013년 1/4분기 주가는 엔화 약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의 매도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종가 1,997 포인트보다 48 포인트 낮은 1,949 포인트로 마감함.
 - 1월 종합주가지수는 엔화 약세 등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순매도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마감함(1월 종가 1,962 포인트).
 - 2월 종합주가지수는 엔화 약세 우려 완화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하순부터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 엔화 약세 재현 등으로 다소 반락함(2월 종가 2,026 포인트).
 - 3월 종합주가지수는 북한 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엔저 지속, 외국인 매도세 증가 등으로 하락세 증대함(3월 종가 2,005 포인트).

〈그림 5〉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2년 4/4분기 비보험 금융권 순수신은 수신금리 인하, MMF 및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부진하였으나,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임.

■ 2012년 4/4분기 보험권 총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15.9% 증가하였음.

○ 4/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6.9% 증가함.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11.4%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5.6% 증가함.

○ 4/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1.2% 증가함.

- 원수보험료는 전분기대비 8.0% 증가하였고 원수손해액은 전분기대비 7.3% 증가함.

〈표 31〉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92,827	109,208	117,097	124,734	121,898	139,042	174,037	201,794
- 생 보	64,883	78,241	89,732	97,036	96,401	105,806	145,350	169,906
수입보험료	212,105	210,617	206,953	236,899	223,891	245,286	281,233	313,339
지급보험금	147,222	132,376	117,221	139,863	127,490	139,480	135,883	143,434
- 손 보	27,945	30,967	27,364	27,698	25,497	33,236	28,687	31,889
원수보험료	132,892	140,723	141,973	166,153	160,799	167,964	167,265	180,624
원수손해액	104,947	109,756	114,609	138,455	135,303	134,729	138,578	148,736
은 행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120,525	113,355	104,974
- 일 반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108,131	54,395	118,680
- 신 탁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12,394	58,960	-13,706
증 권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33,365	67,718	-22,900
투 신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83,820	32,104	21,299
중 금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490	-17,161	-2,493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2012년 4/4분기 비보험 금융권의 순수신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증권과 종금은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음.

- 은행권의 경우 연말 재정집행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은 증가하였으나, 수신 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 부진과 CD순발행 규모 감소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7.4% 감소함.
- 증권사는 고객예탁금 감소와 CMA 유입액 부진으로 큰 폭의 자금 유출이 발생함.
- 투신권은 채권형에서 자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나, MMF 및 주식형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나면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감소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2 3/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한 자리 수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여 22.6% 증가한 49조 4,00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농협보험을 제외할 경우 14.5% 증가함.

■ FY2012 3/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 중심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급증과 장기보험 부진으로 인한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22.6% 증가한 49조 4,000억 원을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한 31조 3,000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및 연금부문의 저성장,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18조 1,000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생명보험	20.7 (7.7)	23.7 (1.5)	22.4 (5.6)	87.8 (5.8)	24.5 (16.5)	28.1 (35.9)	31.3 (32.3)	28.5 (20.2)
손해보험	14.2 (16.0)	16.6 (13.6)	16.1 (21.0)	61.0 (16.7)	16.8 (19.4)	16.7 (17.8)	18.1 (8.7)	17.7 (6.4)
합계	34.9 (10.9)	40.3 (6.1)	38.5 (11.5)	148.8 (10.0)	41.3 (17.6)	44.8 (28.5)	49.4 (22.6)	46.2 (14.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2 3/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자산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면서 전분기대비 3.6% 증가한 700조 원을 기록함.

■ FY2012 3/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 총자산 증가세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둔화되었고 손해보험 또한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인해 총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3.6% 증가에 그친 700조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로 책임준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식시장이 정체로 특별계정 자산증가가 둔화되면서 3.5% 증가한 548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원수보험료 증가로 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고 퇴직연금 계속보험료 증가로 특별계정 자산도 늘어나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152조 원을 기록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생명보험	429.4	442.7	458.2	458.2	505.4	529.2	547.8	505.6
	(1.0)	(3.1)	(3.5)	(10.0)	(10.3)	(4.7)	(3.5)	(3.4)
손해보험	116.5	123.3	129.8	129.8	138.5	146.0	151.8	149.2
	(3.3)	(5.9)	(5.3)	(27.0)	(6.7)	(5.4)	(4.0)	(2.2)
합계	545.9	565.9	588.0	588.0	643.9	675.2	699.6	654.7
	(1.5)	(3.7)	(3.9)	(13.3)	(9.5)	(4.8)	(3.6)	(3.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2 3/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6%p 하락한 1.5%를 기록함.

■ FY2012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1.5%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감소와 총자본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손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1.8%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생명보험	2.8	1.3	1.8	2.5	8.9	1.9	1.9	1.4
손해보험	5.9	3.6	2.5	1.9	15.4	4.0	3.2	1.8
합계	3.8	2.1	2.1	2.3	10.8	2.6	2.3	1.5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 화재보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일반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2.3% 늘어난(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0.2%) 31조 3,000억 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세계개편의 영향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9.1%(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4.6%)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8% 감소함.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3.5%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로 책임준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식시장 정체로 특별계정 자산 증가율이 1.8%에 머물렀기 때문임.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수입보험료 ²⁾	20.7 (7.7)	23.7 (1.5)	22.4 (5.6)	87.8 (5.8)	24.5 (16.5)	28.1 (35.9)	31.3 (32.3)	28.5 (20.2)
총 자산	429.4 (1.0)	442.7 (3.1)	458.2 (3.5)	458.2 (10.0)	505.4 (10.3)	529.2 (4.7)	547.8 (3.5)	505.6 (3.4)

주: 1) 괄호는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2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세를 이어간 가운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되고 변액보험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39.1%(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4.6%)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7.6%(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8%)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증가(5.6%)와 함께 질병보험을 포함한 기타 사망보험의 증가세(10.8%)가 두드러짐.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즉시연금 세제혜택 변경¹⁾ 전 가입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분기에 이어 100%를 상회하는 급증세(108.6%)를 이어감. (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70.9%)
- 즉시연금을 포함한 일반연금 수입보험료는 135.9% 증가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379.3% 증가함.

- 한편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22.6%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중도인출분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²⁾ 전 가입수요가 몰리면서 대형 3사를 중심으로 79.9%(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50.5%)의 급증세를 이어감.

-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는 157.3% 증가하였으며, 대형 3사의 경우 761.6%의 급증세를 나타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가운데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1.3%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3/4 분기에도 1.8% 감소함.

-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4.3% 증가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며, 변액종신보험도 7.1%의 증가세를 기록함.

1)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10년 이내 인출되는 즉시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됨.

2) 주 1)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의 10년 이내 중도인출분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

■ FY2012 3/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1.8% 감소함.

○ 3/4분기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납입이 몰려있는 12월 실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마무리로 퇴직연금 신규 계약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생존	보험료	43,061	43,773	51,654	179,425	58,357	89,359	91,316	74,823
	증가율	3.1	-1.2	16.1	5.0	42.6	107.5	108.6	70.9
	구성비	20.8	18.5	23.1	20.4	23.8	31.8	29.1	26.3
사망	보험료	71,649	71,772	72,171	287,112	76,376	76,309	77,232	73,771
	증가율	-0.3	-0.2	0.8	0.0	6.8	6.5	7.6	2.8
	구성비	34.6	30.3	32.2	32.7	31.1	27.1	24.6	25.9
생사 혼합	보험료	28,489	29,406	37,134	122,378	46,073	54,615	52,905	44,244
	증가율	14.5	7.4	29.0	16.3	68.5	91.7	79.9	50.5
	구성비	13.8	12.4	16.6	13.9	18.8	19.4	16.9	15.5
변액 보험	보험료	54,714	52,149	53,102	212,937	52,354	51,775	52,803	52,803
	증가율	20.0	3.1	0.3	9.7	-1.2	-5.4	1.3	1.3
	구성비	26.4	22.0	23.7	24.2	21.3	18.4	16.9	18.5
개인계	보험료	197,913	197,100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45,640
	증가율	7.5	1.5	8.2	5.9	20.9	37.5	39.1	24.6
	구성비	95.6	83.2	95.6	91.3	95.1	96.7	87.5	86.3
단체	보험료	9,040	39,798	9,831	76,508	12,126	9,175	39,083	39,083
	증가율	12.5	1.4	-31.0	5.3	-32.0	1.5	-1.8	-1.8
	구성비	4.4	16.8	4.4	8.7	4.9	3.3	12.5	13.7
합계	보험료	206,953	236,899	223,891	878,360	245,286	281,233	313,339	284,724
	증가율	7.7	1.5	5.6	5.8	16.5	35.9	32.3	20.2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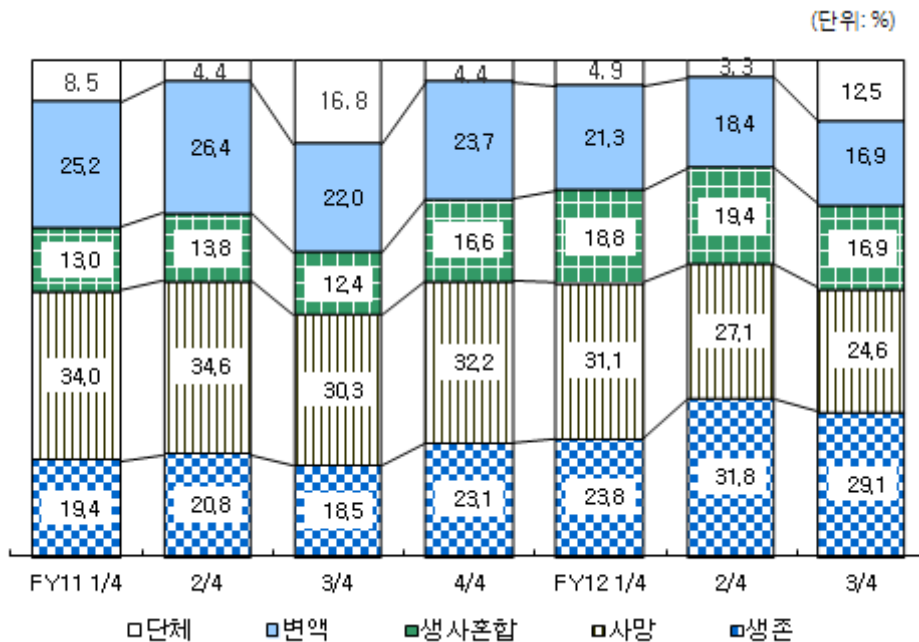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사망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생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0.6%p 증가한 29.1%로 생명보험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4.5%p 증가한 16.9%로 나타남.
- 사망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7%p 하락한 24.6%로 나타났으며, 수입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한 변액보험과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한 단체보험 비중은 각각 5.1%p, 4.3%p로 하락한 16.9%, 12.5%로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가 강세를 보이는 단체보험의 부진과 농협생명보험 진입 등으로 국내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상위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상위 3사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서 생명보험 전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강세를 보이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6%p 축소된 53.0%의 점유율을 나타냄.
-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농협생명 진입과 단체보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6%p 상승한 33.2%를 나타냈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4.0%p 하락한 13.8%로 나타남.

■ FY2012 3/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50 포인트 상승한 0.1308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상위 3개사	50.8	53.6	50.1	51.8	45.8	50.9	53.0	53.6
국내중소형사 ²⁾	29.1	28.6	30.6	28.4	37.2	33.2	33.2	28.6
외국사 ³⁾	20.1	17.8	19.3	19.8	17.0	15.9	13.8	17.8
허핀달지수 ⁴⁾	0.1136	0.1258	0.1111	0.1179	0.1031	0.1176	0.1308	0.1258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2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2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한 반면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2%p 낮아진 45.8%로 나타남.

- 사망보험 지급률은 사망급여 및 입원급여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한 54.8%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5%p 상승한 58.5%를 나타냄.
-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1%p, 1.2%p 감소한 31.8%, 43.8%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2.4%p 하락한 13.1%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보다 0.1%p, 소폭 하락한 7.8%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 지급률 ¹⁾	62.9	56.6	59.0	56.9	58.9	56.9	48.3	45.8
개 인 계	54.0	52.3	51.1	53.0	52.6	53.9	45.6	45.7
- 생 존	54.5	60.8	58.9	51.2	56.1	44.1	30.1	31.8
- 사 망	50.4	53.0	53.2	56.7	53.3	55.0	56.9	54.8
- 생사혼합	44.8	45.7	45.0	39.1	43.3	65.3	44.0	43.8
- 변 액	63.3	48.0	45.0	59.3	53.9	53.1	57.5	58.5
단 체	158.4	152.5	98.5	143.2	124.6	113.9	127.7	46.2
사 업 비 율	16.5	17.7	15.5	16.7	16.6	15.4	14.0	13.1
해 지 율 ²⁾	2.8	5.3	7.9	10.2	10.2	2.8	5.4	7.8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2)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7,060억 원을 기록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14,438	14,788	14,957	16,688	60,872	18,563	22,505	22,621
	투자영업	5,247	5,481	4,402	4,894	20,024	5,656	5,600	6,129
	영업외	898	903	902	961	3,664	984	1,000	1,018
	소 계	20,583	21,173	20,261	22,543	84,560	25,204	29,105	29,768
총 비 용	보험영업	10,864	11,683	11,756	12,397	46,700	14,023	13,958	14,107
	투자영업	1,044	1,657	258	348	3,308	1,049	699	1,420
	영업외	176	238	171	153	738	165	168	181
	소 계	12,084	13,578	12,186	12,898	50,746	15,236	14,825	15,708
수 지 차	보험영업	3,575 (9.8)	3,105 (-10.3)	3,201 (20.6)	4,291 (44.6)	14,172 (14.8)	4,540 (27.0)	8,547 (175.3)	8,514 (166.0)
	투자영업	4,203 (1.8)	3,824 (0.2)	4,144 (2.3)	4,546 (-4.0)	16,717 (-0.1)	4,608 (9.6)	4,901 (28.2)	4,709 (13.6)
	영업외	721	666	730	808	2,926	820	832	837
	소 계	8,499	7,595	8,075	9,645	33,814	9,968	14,280	14,060
	책임준비금전입	7,126	6,944	7,090	8,291	29,452	8,909	13,103	13,146
법 인 세		281	132	253	325	992	215	252	208
당기순이익		1,091 (-15.1)	519 (-38.2)	732 (-21.2)	1,029 (6.6)	3,371 (-16.1)	844 (-22.6)	925 (78.3)	706 (-3.6)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보험영업이익은 일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의 급증으로 보험영업수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66.0% 증가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영업수익이 증가하면서 13.6%의 증가를 나타냄.

〈부채 및 자본〉

■ FY2012 3/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총자본 또한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27.2% 증가함.

- 총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자산 평가손익 증가로 46.5% 증가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2/4	3/4
책임준비금	금액	286	293	300	344	352	366	379
	증가율	10.7	10.4	10.5	23.1	23.1	24.6	26.1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6	6	7	7	7	9	9
	증가율	6.4	-14.6	-4.0	15.1	19.2	54.1	34.1
기타부채	금액	11	12	13	13	14	14	14
	증가율	-0.3	10.5	11.7	19.1	23.9	13.5	12.7
특별계정부채	금액	82	79	82	86	86	90	94
	증가율	10.8	1.1	1.5	5.0	4.0	13.5	14.4
부채총계	금액	386	391	402	451	460	478	496
	증가율	10.3	7.9	8.3	18.9	19.0	22.5	23.4
자본금	금액	9	9	9	9	9	9	9
	증가율	4.6	4.1	2.0	7.6	5.7	6.0	7.6
자본잉여금	금액	3	3	3	5	5	5	6
	증가율	10.3	-8.2	-9.5	65.8	76.6	77.6	89.9
이익잉여금	금액	17	17	18	19	19	20	21
	증가율	24.6	21.3	18.9	18.2	15.3	16.9	1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1	10	12	13	13	17	17
	증가율	47.0	1.4	9.4	28.7	23.8	67.6	46.5
자본총계	금액	39	39	41	46	46	51	52
	증가율	23.2	8.5	8.8	21.5	18.3	31.0	27.2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425	429	443	497	505	529	548
	증가율	11.4	8.0	8.4	19.2	18.9	23.2	23.8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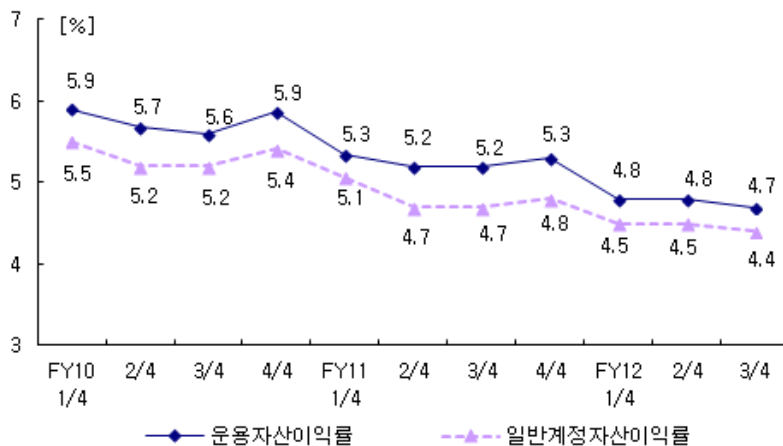
〈자산 운용〉

■ FY2012 3/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매도가능채권과 대출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각각 전년동기대비 0.5%p, 0.3%p 하락한 4.7%와 4.4%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채권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7%로 나타났고 대출채권 수익률도 0.5%p 하락한 6.9%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 수익률은 0.2%p 상승한 3.8%를 기록함.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69.0%, 대출채권 17.4%, 현금과 예금 4.4%, 부동산 3.1%이며,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채권의 비중은 41.5%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¹⁾²⁾³⁾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구성비 ¹⁾	이익률 ²⁾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4.0	3.8	4.1	3.8	3.9	3.6	3.9	3.5	4.4	3.1
유 가 증 권	65.9	4.7	66.3	4.8	68.1	4.4	69.1	4.4	69.0	4.3
○ 당기손익인식증권	1.5	0.3	1.6	2.6	2.2	2.4	2.5	5.2	2.4	5.0
- 주 식	0.1	-24.5	0.1	-8.0	0.1	-31.4	0.1	-2.2	0.1	-1.1
- 채 권 등	0.8	2.3	0.7	4.1	0.8	4.5	0.8	8.3	0.6	7.9
- 수익증권	0.6	1.4	0.8	2.7	1.3	4.2	1.6	4.1	1.7	4.0
○ 매도가능증권	50.4	4.8	51.4	4.7	47.6	4.3	49.3	4.2	49.4	4.1
- 주 식	4.9	0.9	5.3	1.9	4.7	0.3	4.8	-0.1	5.1	-0.4
- 채 권 등	43.2	5.0	43.5	5.0	40.3	4.8	41.9	4.7	41.5	4.7
- 수익증권	2.4	8.3	2.5	5.8	2.6	2.5	2.6	3.4	2.8	3.4
○ 만기보유증권	13.1	5.2	12.5	5.4	17.0	5.2	15.9	5.2	15.8	5.1
- 채 권 등	13.1	5.2	12.5	5.4	17.0	5.2	15.9	5.2	15.8	5.1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0.8	1.2	0.9	7.2	1.4	4.2	1.4	2.5	1.4	2.0
대 출 채 권	19.3	7.4	18.9	7.4	18.1	6.9	17.6	7.0	17.4	6.9
부 동 산	3.7	3.6	3.7	3.5	3.3	3.6	3.2	3.8	3.1	3.8
운 용 자 산 계	92.9	5.2	93.0	5.3	93.3	4.8	93.7	4.8	93.9	4.7
비 운 용 자 산	7.1	-0.9	7.0	-0.6	6.7	-0.9	6.3	0.0	6.1	0.2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1.9)	4.7	100.0 (81.3)	4.8	100.0 (83.2)	4.5	100.0 (83.1)	4.5	100.0 (83.4)	4.4
특 별 계 정 자 산	18.1	-2.3	18.7	0.9	16.8	-5.4	16.9	3.0	16.6	3.2
총 자 산	100.0	3.4	100.0	4.1	100.0	2.8	100.0	4.3	100.0	4.2
총 자 산 규 모	4,426,524		4,582,041		5,052,803		5,291,873		5,478,271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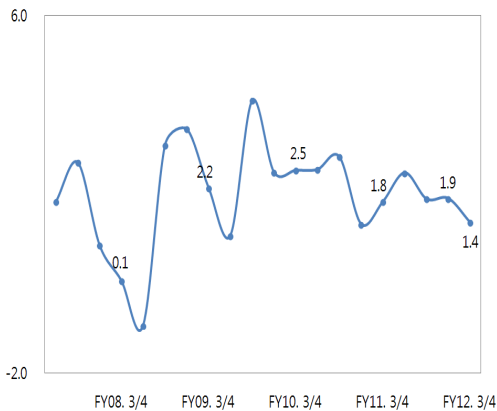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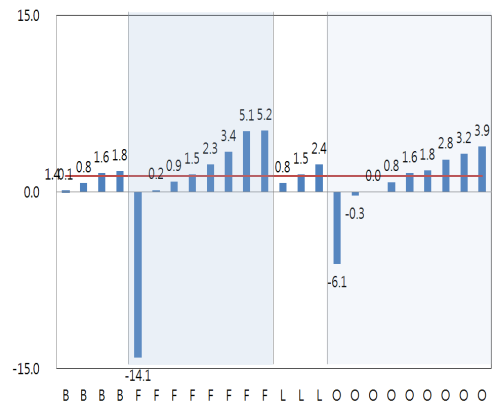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반면 총자본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반면 총자본은 27.2%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1개 외국사와 2개 국내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방카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외국사만이 전체 자본이익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24개 회사임.

- 대형사, 중소형사,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모두 전체 자본이익률 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본이익률 수준을 상회함.
-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방카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1.2%를 나타냄.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가 총자본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1.1%p 하락한 1.2%, 1.4%를 나타냈으며,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1.2%p 하락한 2.1%를 기록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²⁾	1/4	2/4	3/4
대형사	2.6	1.2	1.4	2.2	7.5	1.7	1.9	1.2
중소형사	4.4	2.1	2.5	3.6	13.5	2.9	2.2	1.4
외국사	3.1	1.5	3.3	2.6	11.4	2.0	2.1	2.1
방카사 ³⁾	-0.8	-0.3	0.1	1.3	0.4	-0.2	-1.8	1.2
전체	2.8	1.3	1.8	2.5	8.7	1.9	1.9	1.4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HSBC,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을 분해해보면 자산회전율은 상승하고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6.4%를 나타난 반면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은 각각 0.3%p, 1.3%p 하락한 8.7%, 2.5%를 기록함.
-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한 방카사의 경우 자산회전율은 하락한 반면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이 상승하였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자산회전율은 상승한 반면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은 하락하였고 외국사는 모든 비율이 하락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대형사	8.7	8.3	8.1	4.2	5.6	5.5	3.7	4.1	2.6
중소형사	12.7	12.4	12.2	8.3	8.2	8.4	2.4	2.2	1.4
외국사	7.2	6.9	6.8	6.5	6.7	6.1	7.1	4.5	5.0
방카사	11.9	12.8	12.4	9.7	9.8	7.6	0.1	-1.4	1.3
전체	9.0	8.9	8.7	5.4	6.5	6.4	3.8	3.3	2.5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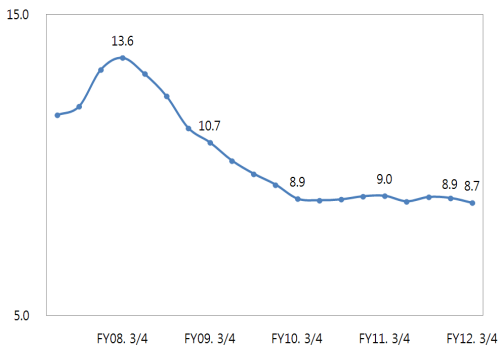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총자본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3배 하락한 8.7배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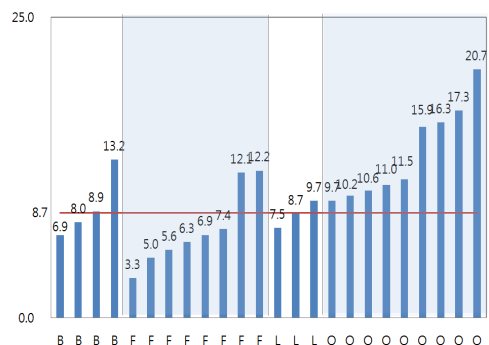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전년동기대비 자산증가율은 23.8%로 자본증가율 27.2%를 하회하면서 레버리지비율 하락을 유발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3〉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3.3	3.6	19.0	2.6
중소형사	75.0	4.5	91.6	3.5
외국사	11.1	1.5	14.5	-1.8
방카사	26.0	4.1	24.6	2.0
전체	23.8	3.5	27.2	2.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회사그룹별로는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한 방카사를 제외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레버리지비율이 모두 하락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형사	8.5	8.7	8.7	8.4	11.0	8.4	8.3	8.1
중소형사	12.4	12.4	12.6	12.6	15.2	12.6	12.4	12.2
외국사	7.5	7.3	7.2	7.2	10.2	7.2	6.9	6.8
방카사	11.0	11.3	11.9	12.5	15.7	13.2	12.8	12.4
전체	8.9	9.0	9.0	8.8	10.8	8.9	8.9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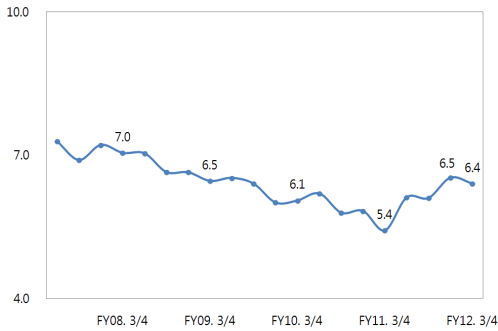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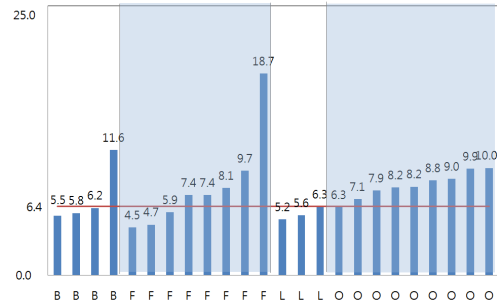
■ FY2012 3/4분기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1.0%p 상승한 6.4%를 기록함.

〈그림 7〉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회전율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보험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한 5.0%를 나타냈으며, 투자영업이익률도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이익 등으로 인한 투자영업수익의 증가로 0.2%p 상승한 1.4%를 기록함.

〈표 1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대형사	4.2	5.6	5.5	3.1	4.3	4.1	1.2	1.3	1.4
중소형사	8.3	8.2	8.4	7.0	6.9	7.1	1.3	1.3	1.3
외국사	6.5	6.7	6.1	5.1	5.4	4.8	1.4	1.3	1.3
방카사	9.7	9.8	7.6	8.5	8.6	6.4	1.3	1.2	1.3
전체	5.4	6.5	6.4	4.2	5.2	5.0	1.2	1.3	1.4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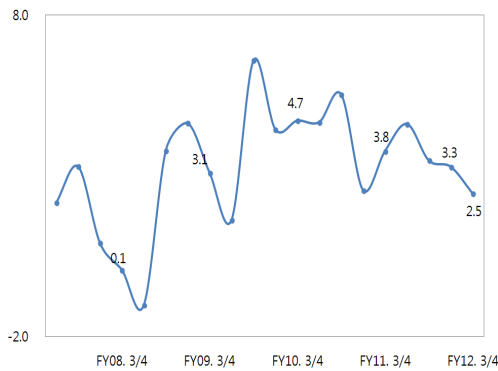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2.5%를 기록함.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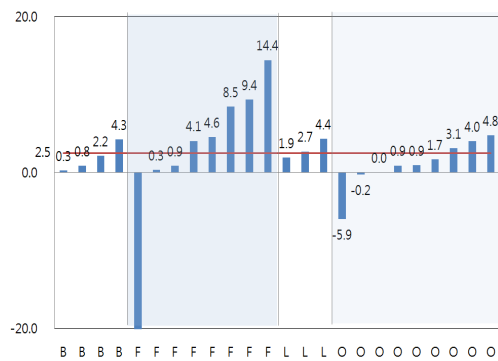
〈그림 9〉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단위: %)



〈그림 1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대형사	3.7	4.1	2.6	8.7	30.3	28.3	27.3	20.6	18.5
중소형사	2.4	2.2	1.4	28.1	32.7	37.2	13.7	13.6	12.8
외국사	7.1	4.5	5.0	11.5	20.1	11.7	19.0	16.8	17.7
방카사	0.1	-1.4	1.3	46.4	51.2	37.8	11.4	11.0	15.4
전체	3.8	3.3	2.5	16.2	30.4	29.6	21.5	17.4	16.4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text{보험영업이익률} = \text{보험영업이익} / \text{영업수익} \quad * \text{영업수익} = \text{보험영업수익} + \text{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2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저축성보험 판매 급증과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로 설계사와 대리점의 비중도 소폭 증가함.

- FY2012 3/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판매 급증과 농협생명보험 진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4.3%p 상승한 60.8%를 기록함.
- 설계사와 대리점의 판매 비중이 높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두자리수 증가를 나타내면서 설계사와 대리점 비중은 각각 0.4%p, 1.1%p 증가한 23.9%, 8.3%를 기록함.
- 임직원의 비중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6%p 감소한 6.9%를 나타냄.

〈표 17〉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임 직 원	12.7	32.5	7.3	21.3	5.3	2.6	6.9	8.6
설 계 사	29.5	23.5	23.4	24.7	19.3	19.6	23.9	26.5
대 리 점	7.3	7.2	6.7	7.1	5.4	5.3	8.3	9.0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50.0	36.5	62.3	46.6	69.9	72.5	60.8	55.8
기 타	0.4	0.3	0.3	0.3	0.1	0.0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400	42,032	42,889	148,510	45,622	82,265	82,087	68,200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한 반면 임직원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31명 증가한 29,717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3사와 국내중소형사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사에서는 감소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1,586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체설계사가 각각 1,071명, 515명 감소함.
 - 전속설계사 수는 상위3사에서 2,119명 감소한 반면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120명, 928명 증가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357개, 53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10개가 감소한 8,455개를 나타냄.

〈표 18〉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6,717	27,339	27,340	27,963	29,065	29,586	29,717
설 계 사	147,671	150,161	152,294	153,189	156,149	157,738	156,152
- 전속	134,574	138,024	141,034	141,499	144,736	147,004	145,933
- 교차	13,097	12,137	11,260	11,690	11,413	10,734	10,219
대 리 점	9,610	9,511	9,089	8,965	8,981	8,865	8,455
- 개인	6,177	6,176	5,857	5,712	5,624	5,514	5,157
- 법인	3,433	3,335	3,232	3,253	3,357	3,351	3,298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연금부문의 저성장과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이 FY2011 3/4분기 13.6%에 비해 크게 낮아진 8.7%를 기록하여 18조 624억 원을 나타냈고,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6.4% 늘어난 17조 6,835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증가세 둔화로 14.9% 늘어난 9조 9,78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1.3% 증가한 9조 6,727억 원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0.3% 증가에 그친 2조 8,174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하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로 1.6% 감소한 3조 2,26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7% 감소한 3조 2,258억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 등으로 11% 증가한 2조 401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7% 증가한 1조 9,675억 원을 나타냄.

■ FY2012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4% 증가한 151조 7,93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2.2% 증가한 149조 1,924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자산은 원수보험료 증가로 보험료적립금이 늘어나면서 4% 증가(농협 제외 시 4.2%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계속보험료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3.4% 늘어남.

〈표 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원수보험료	14.2 (16.0)	16.6 (13.6)	16.1 (21.0)	61.0 (16.7)	16.8 (19.4)	16.7 (17.8)	18.1 (8.7)	17.7 (6.4)
장기손보	8.1 (16.9)	8.7 (20.4)	9.7 (31.3)	34.1 (21.2)	9.8 (28.1)	10.1 (24.0)	10.0 (14.9)	9.7 (11.3)
연금부문 ²⁾	1.0 (43.8)	2.8 (11.2)	1.4 (15.3)	6.7 (24.8)	1.6 (14.4)	1.5 (41.6)	2.8 (0.3)	2.8 (0.3)
자동차	3.3 (8.3)	3.3 (2.2)	3.3 (1.1)	13.0 (5.1)	3.3 (2.0)	3.2 (-2.9)	3.2 (-1.6)	3.2 (-1.7)
일반손해	1.7 (14.2)	1.8 (9.5)	1.8 (17.7)	7.1 (12.7)	2.1 (16.9)	2.0 (14.4)	2.0 (11.0)	2.0 (7.0)
총 자산 ³⁾	116.5 (3.3)	123.3 (5.9)	129.8 (5.3)	129.8 (27.0)	138.5 (6.7)	146.0 (5.4)	151.8 (4.0)	149.2 (2.2)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부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2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9조 9,78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최근까지 20%를 상회하던 고성장세는 크게 둔화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신규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17.7% 증가한 2조 9,689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⁴⁾ 전 가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각 16.7%, 12.4% 증가한 2조 4,678억 원, 1조 7,665억 원을 기록함.

- 운전자 및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되어 각각 8.3%, 25.5% 증가한 6,151억 원, 9,456억 원을 나타냈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하면 운전자 보험은 0.1% 감소, 재물보험은 9.5% 증가에 그침.

■ FY2012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가 크게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한 7,294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급증세를 나타내던 방카슈랑스 채널이 일부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22.5% 감소한 5,595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각 39.3%, 82.4% 증가한 682억 원, 498억 원을 기록함.
-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추가로 45.3% 증가한 104억 원을 시현하였으나,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신규 가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31.5% 감소한 285억 원을 나타냄.

4)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0,151	21,152	21,889	83,554	23,029	23,813	24,678	24,267
		증가율	10.3	11.5	11.6	12.1	13.1	18.2	16.7	14.7
	운전자	보험료	5,711	5,679	5,642	22,781	6,146	6,129	6,151	5,675
		증가율	1.8	0.7	-1.3	1.1	6.9	7.3	8.3	-0.1
	재 물	보험료	7,444	7,536	7,749	28,993	9,315	9,392	9,456	8,251
		증가율	42.1	34.5	30.3	33.1	48.7	26.2	25.5	9.5
	질 병	보험료	15,484	15,713	16,033	62,490	16,426	16,927	17,665	17,665
		증가율	11.3	9.1	8.6	10.4	7.6	9.3	12.4	12.4
	저축성	보험료	20,988	25,224	33,372	97,465	31,437	32,186	29,689	28,727
		증가율	35.3	52.5	102.7	55.8	75.8	53.4	17.7	13.9
	통합형	보험료	11,188	11,400	11,752	45,417	11,926	12,072	12,047	12,047
		증가율	5.3	6.2	8.8	6.2	7.7	7.9	5.7	5.7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01	173	136	732	103	99	96	96
		증가율	-31.2	-32.6	-43.0	-30.6	-53.6	-50.7	-44.9	-44.9
	운전자	보험료	81,166	86,877	96,572	341,432	98,381	100,619	99,782	96,727
		증가율	16.9	20.4	31.3	21.2	28.1	24.0	14.9	11.3
	재 물	보험료	424	490	602	1,976	562	579	682	656
		증가율	-7.8	-5.4	9.3	-3.4	22.1	36.6	39.3	34.0
	운전자	보험료	65	72	76	279	101	110	104	98
		증가율	-39.8	-30.7	-62.0	-48.3	52.7	68.7	45.3	37.2
	재 물	보험료	448	415	345	1,565	399	306	285	278
		증가율	73.3	37.3	9.9	42.5	12.3	-31.7	-31.5	-33.0
	질 병	보험료	236	273	331	1,150	302	377	498	498
		증가율	-26.1	-7.0	-3.9	-3.9	-2.6	59.8	82.4	82.4
계 속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4,694	7,216	13,715	28,476	10,294	9,189	5,595	5,238
		증가율	35.0	125.3	432.9	132.9	261.0	95.8	-22.5	-27.4
	통합형	보험료	157	146	198	603	153	142	130	130
		증가율	48.1	51.1	94.6	47.5	49.7	-9.8	-11.2	-11.2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2	0	-2	0	0	0	0
		증가율	-95.0	1,013.8	-100.0	-70.5	-84.9	-69.7	-100.0	-100.0
	소 계	보험료	6,025	8,609	15,269	34,048	11,811	10,703	7,294	6,898
		증가율	27.4	90.6	273.6	94.5	184.9	77.6	-15.3	-19.9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9,727	20,663	21,286	81,578	22,467	23,234	23,995	23,611
		증가율	10.8	11.9	11.7	12.6	12.9	17.8	16.1	14.3
	운전자	보험료	5,646	5,607	5,566	22,502	6,046	6,019	6,047	5,577
		증가율	2.6	1.3	0.9	2.3	6.4	6.6	7.9	-0.5
	재 물	보험료	6,996	7,120	7,403	27,428	8,916	9,086	9,171	7,973
		증가율	40.4	34.3	31.5	32.6	50.9	29.9	28.8	12.0
	질 병	보험료	15,248	15,440	15,701	61,340	16,124	16,550	17,167	17,167
		증가율	12.2	9.4	8.9	10.7	7.8	8.5	11.2	11.2
	저축성	보험료	16,293	18,009	19,657	68,989	21,143	22,997	24,094	23,489
		증가율	35.3	35.0	41.5	37.1	40.7	41.1	33.8	30.4
	통합형	보험료	11,031	11,254	11,554	44,813	11,773	11,931	11,917	11,917
		증가율	4.9	5.8	8.0	5.8	7.3	8.2	5.9	5.9
계 속 보험료	자산 연계형	보험료	201	175	136	734	103	99	96	96
		증가율	-31.2	-31.9	-43.0	-30.9	-53.6	-50.7	-45.5	-45.5
	소 계	보험료	75,141	78,267	81,303	307,384	86,571	89,916	92,488	89,829
		증가율	16.1	15.7	17.0	16.3	19.1	19.7	18.2	14.8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3/4분기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재물보험과 저축성보험 해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해, 운전자, 질병보험 해지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높아진 9.4%를 기록함.

○ 상해, 운전자, 질병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보유계약액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각 0.8%p, 0.6%p, 0.3%p 상승한 8.8%, 9.0%, 9.1%를 나타냄.

○ 그러나 재물보험과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p, 0.8%p 하락한 12.7%, 9.6%를 기록함.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3/4
상 해	5.6	8.0	10.5	3.1	6.0	8.8
운전자	5.8	8.4	11.1	3.2	6.1	9.0
재 물	10.8	15.1	18.8	5.1	9.2	12.7
질 병	6.1	8.8	11.4	3.1	6.0	9.1
저축성	7.1	10.4	13.6	3.5	6.6	9.6
통합형	4.4	6.7	8.9	2.6	5.2	7.7
계	6.4	9.3	12.1	3.4	6.4	9.4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2 3/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에 그친 2조 8,174억 원을 시현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⁵⁾ 등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17.1% 증가한 1조 707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둔화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에 따른 신규 판매 실적 부진으로 7.4% 감소한 1조 7,465억 원을 기록함.

5)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표 2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개인 연금	보험료	7,586	8,200	9,145	9,343	34,273	9,857	10,296	10,707
	증가율 ¹⁾	37.2	40.9	41.9	35.2	38.8	29.9	25.6	17.1
	구성비 ²⁾	53.0	79.0	32.6	66.2	51.2	60.2	70.1	38.0
퇴직 보험	보험료	516	4	92	224	835	1	6	2
	증가율	-46.3	-98.6	-97.7	102.3	-84.2	-99.8	48.5	-97.7
	구성비	3.6	0.0	0.3	1.6	1.2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6,218	2,169	18,857	4,547	31,791	6,516	4,389	17,465
	증가율	160.7	93.2	26.6	-12.8	34.6	4.8	102.3	-7.4
	구성비	43.4	20.9	67.1	32.2	47.5	39.8	29.9	62.0
합계	보험료	14,320	10,373	28,094	14,114	66,900	16,375	14,691	28,174
	증가율	61.4	43.8	11.2	15.3	24.8	14.4	41.6	0.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2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하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3조 2,268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하 및 할인형 상품⁶⁾ 증가 등으로 3.2% 줄어든 8,048억 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및 정률제 시행에 따른 자차 담보 감소세가 5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1.3% 감소한 2조 2,801억 원을 기록함.

6) 주행거리연동 특약, 블랙박스 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이 있음.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8,502	8,584	8,311	8,028	33,426	8,111	7,991	8,048
		-0.4	-1.7	-5.5	-6.0	-3.4	-4.6	-6.9	-3.2
종합 보험	대인 II	3,247	3,402	3,360	3,313	13,323	3,288	3,274	3,310
		1.9	4.7	2.9	3.2	3.2	1.3	-3.8	-1.5
	대물	8,979	9,535	9,857	9,970	38,342	10,280	10,259	10,450
		14.5	16.4	12.0	12.6	13.8	14.5	7.6	6.0
	자차	8,575	8,754	8,455	8,453	34,237	7,973	7,749	7,620
		16.0	9.4	-3.2	-6.5	3.2	-7.0	-11.5	-9.9
	자손	1,115	1,177	1,164	1,117	4,572	1,128	1,144	1,170
		5.8	9.2	2.4	-0.8	4.1	1.2	-2.8	0.5
	무보험	272	279	265	258	1,074	254	250	250
		-2.9	-3.0	-8.5	-8.4	-5.7	-6.4	-10.3	-5.7
	소계	22,188	23,148	23,101	23,111	91,548	22,923	22,676	22,801
		12.3	11.3	3.9	2.7	7.3	3.3	-2.0	-1.3
외화표시		27	30	39	25	122	30	23	33
		0.4	47.8	14.3	23.9	19.2	9.9	-24.2	-14.2
이륜자동차 ²⁾		173	164	149	151	637	268	211	161
		10.3	13.0	7.9	17.9	12.1	54.6	28.6	8.0
기타 ³⁾		1,087	1,202	1,202	1,191	4,682	1,284	1,256	1,225
		30.7	36.8	33.1	27.0	31.8	18.1	4.5	1.8
합계		31,977	33,128	32,803	32,507	130,415	32,615	32,157	32,268
		9.1	8.3	2.2	1.1	5.1	2.0	-2.9	-1.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담보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년동기대비 6.5%p 상승한 91.9%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요율 조정에 의한 경과보험료 감소와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발생손해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손해율보다 4.9%p 상승한 95.4%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7.1%p 상승한 90.8%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손해액이 크게 증가였기 때문임.

〈표 24〉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73.2	80.4	90.5	81.3	81.3	82.6	86.5	95.4
종합보험	대인 II	86.5	88.9	91.2	88.1	88.7	101.8	82.9	91.0
	대물	87.5	89.6	93.2	88.7	89.8	85.4	87.6	97.2
	자차	78.7	79.0	70.4	66.8	73.7	59.6	72.3	83.7
	자손	66.0	72.5	91.0	90.3	80.1	73.0	77.9	92.1
	무보험	47.6	60.6	68.3	64.6	60.1	50.6	64.2	56.2
	소계	82.3	84.1	83.7	80.1	82.6	77.3	80.7	90.8
외화표시		71.9	84.4	87.8	54.9	75.0	71.2	104.8	88.6
이륜자동차 ²⁾		89.2	92.2	89.7	81.9	88.3	95.9	86.4	77.6
기타 ³⁾		74.4	85.1	81.6	79.9	80.4	65.3	81.0	92.2
합계		79.6	83.3	85.4	80.6	82.2	78.2	82.1	91.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되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2 3/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2조 40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7% 늘어난 1조 9,675억 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추가로 24.8% 증가한 946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4.7% 증가에 그친 794억 원을 나타냄.⁷⁾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 및 선박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양종합보험⁸⁾이 큰 폭으로 증가(670.1%)하여 18.1% 늘어난 2,165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과 통신 서비스 관련 신용보험 증가세 둔화 등으로 0.1% 증가에 그친 3,913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하면 9.4% 증가한 1조 2,063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4.5% 증가에 그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14.3%나 감소한 890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확대로 6.6% 증가한 4,076억 원을 시현함.
 - 기타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진입의 영향으로 59.5% 증가한 2,14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였을 경우 25.9% 증가함.

7) FY2012 3/4분기 기준 손해보험 전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농협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임.

8) 해양종합보험은 유정 및 시추선 등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에 포함됨.

〈표 25〉 일반손해보험²⁾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화 재	보험료	598	758	656	2,636	782	758	946	794
	증가율	-0.7	-2.7	-0.2	-0.9	25.3	26.7	24.8	4.7
	구성비	3.5	4.1	3.7	3.7	3.8	3.8	4.6	4.0
해 상	보험료	2,138	1,833	2,335	8,699	2,356	2,217	2,165	2,147
	증가율	8.5	-5.5	35.2	12.7	-1.5	3.7	18.1	17.1
	구성비	12.4	10.0	13.3	12.3	11.4	11.2	10.6	10.9
보 증	보험료	3,634	3,908	4,083	15,172	4,081	3,810	3,913	3,898
	증가율	22.0	14.4	17.2	16.1	15.1	4.8	0.1	-0.3
	구성비	21.0	21.3	23.2	21.4	19.8	19.2	19.2	19.8
특 종	보험료	10,270	11,026	9,525	41,230	12,377	11,867	12,063	11,522
	증가율	13.7	10.8	12.5	11.1	18.9	15.5	9.4	4.5
	구성비	59.3	60.0	54.1	58.2	60.1	59.9	59.1	58.6
해 외 원보험	보험료	667	854	1,007	3,164	997	1,147	1,314	1,314
	증가율	17.4	21.8	61.6	36.1	56.6	72.1	53.8	53.8
	구성비	3.9	4.6	5.7	4.5	4.8	5.8	6.4	6.7
합계	보험료	17,307	18,380	17,606	70,901	20,593	19,798	20,401	19,675
	증가율	14.2	9.5	17.7	12.7	16.9	14.4	11.0	7.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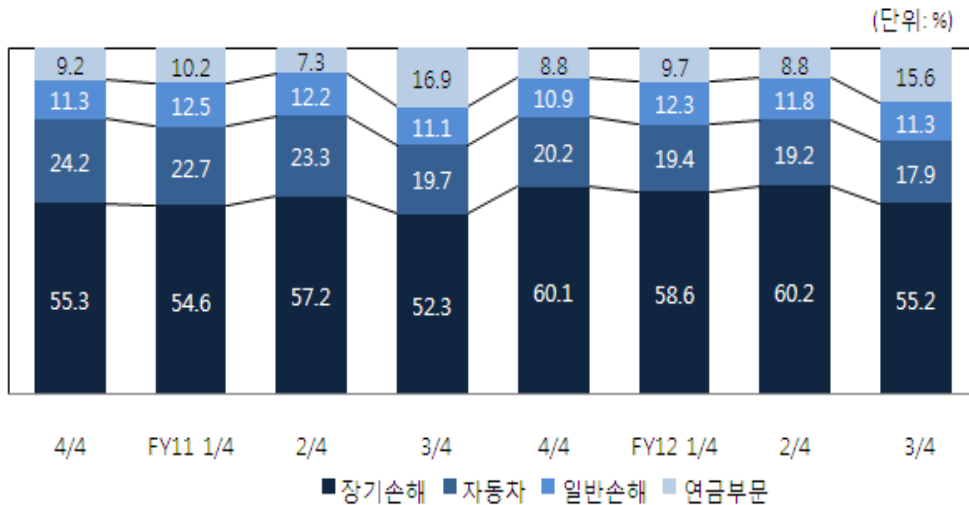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2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연금보험 비중은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성장률(14.9%)을 나타내고 있어 비중이 2.9%p 증가한 55.2%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양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0.2%p 증가에 그친 11.3%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효율 인하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으로 1.8%p 축소된 17.9%를 기록하였으며, 연금부문 비중도 퇴직연금 저성장으로 1.3%p 낮아진 15.6%를 나타냄.

〈그림 11〉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농협손해보험의 시장 진입으로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늘어났으며, 허핀달지수는 0.0039 감소한 0.1465을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국내 중소형사 실적에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고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1.8%p 축소된 70.7%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2.2%p 확대된 25%를 시현함.
- 전업사 및 외국사 점유율은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과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 확대 등으로 각각 0.2%p씩 낮아진 2.2%, 2.1%를 나타냄.

〈표 26〉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상위 4사	70.8	72.5	72.2	71.7	69.8	70.1	70.7	72.2
국내 중소형사 ²⁾	23.8	22.8	22.9	23.3	25.5	25.4	25.0	23.4
전업사	2.6	2.4	2.5	2.5	2.4	2.3	2.2	2.2
외국사	2.9	2.3	2.4	2.6	2.2	2.3	2.1	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8	2.3	2.3	2.5	2.1	2.2	2.0	2.1
허핀달지수 ³⁾	0.1488	0.1504	0.1492	0.1501	0.1434	0.1473	0.1465	0.1524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국내 중소형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3)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82.3%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발생손해액 증가로 6.5%p 악화된 91.9%를 기록함.
- 다른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증가율이 발생손해액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며 따라 개선됨.

■ FY2012 3/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9%p 높아진 20%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상해 및 질병보험 신규 판매 증가에 따른 순사업비 증가로 1.8%p 높아진 18.2%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순사업비가 소폭 증가(3%)한 반면 보유보험료가 저성장세로 감소(0.9%)함에 따라 0.8%p 상승한 21.6%를 나타냄.

■ FY2012 3/4분기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상승으로 1.5%p 높아진 102.3%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1.7	82.6	83.2	84.6	83.1	84.3	84.5	82.9
	자동차보험	79.6	83.3	85.4	80.6	82.2	78.2	82.1	91.9
	화재보험	47.4	61.0	66.3	62.6	59.0	59.1	68.2	52.7
	해상보험	58.7	42.2	63.5	60.2	57.2	64.3	49.7	56.1
	보증보험	43.9	43.0	65.0	67.5	55.0	61.0	68.6	48.1
	특종보험	61.6	69.2	70.9	69.6	68.0	61.1	79.8	72.1
	해외원보험	43.5	56.6	53.8	55.5	53.3	53.6	55.7	54.5
	해외수재보험	54.4	78.5	112.1	131.0	95.0	65.5	57.3	47.4
	전체	78.2	80.7	82.7	82.8	81.2	80.4	82.4	82.3
사업비율		18.3	18.2	18.1	18.9	18.4	18.2	18.7	20.0
합산비율		96.5	98.9	100.8	101.7	99.6	98.6	101.1	102.3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감안한 재무손해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한 4,383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보험영업수익이 증가(10.8%)하였으나 환급금 및 사업비 증가로 보험영업비용도 늘어나(12.6%) 5,419억 원 적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이익, 대손충당금 환입 증가로 투자영업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18.8% 늘어난 1조 1,916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28〉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12,899	13,624	14,358	15,349	56,229	15,681	15,971	15,915
	투자영업	1,439	1,646	1,158	1,342	5,584	1,491	1,588	1,773
	기타	244	255	708	367	1,574	492	288	666
	소계	14,582	15,525	16,224	17,058	63,388	17,664	17,847	18,354
총비용	보험영업	12,651	13,676	14,613	15,853	56,795	15,703	16,354	16,457
	투자영업	420	693	155	262	1,529	377	316	581
	기타	268	279	752	407	1,705	523	315	721
	소계	13,339	14,648	15,520	16,522	60,030	16,602	16,985	17,760
수지차	보험영업	247	-53	-255	-504	-566	-22	-382	-542
	투자영업	1,019	953	1,003	1,080	4,055	1,115	1,272	1,192
	기타	-23	-23	-44	-40	-131	-32	-27	-56
	소계	1,243	877	704	536	3,358	1,061	862	594
법인세		280	230	232	165	906	251	176	156
당기순이익		963	647	472	371	2,452	810	686	438
		(8.6) ²⁾	(64.4)	(80.4)	(-24.2)	(20.7)	(-15.9)	(6.1)	(-7.1)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 · 총자본〉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총부채는 책임준비금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증가하여 18% 증가함.

-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함.
-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은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도 45.6% 증가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2/4	3/4
책임준비금	금액	81.1	85.6	90.2	97.1	102.4	108.1	111.9
	증가율 ¹⁾	30.0	30.2	30.5	34.6	26.2	26.3	24.0
기타부채	금액	9.6	8.8	9.2	9.6	10.4	10.2	11.2
	증가율	27.0	19.6	23.0	24.0	7.9	15.9	20.9
특별계정부채	금액	4.2	3.9	4.9	5.0	5.4	5.6	6.3
	증가율	24.9	13.8	27.9	34.9	28.0	44.0	28.7
부채총계	금액	95.0	98.3	104.4	111.7	118.2	123.9	129.4
	증가율	23.3	22.4	23.8	27.6	24.4	26.0	24.0
자본금	금액	2.2	2.2	2.2	2.3	2.2	2.2	2.1
	증가율	-32.7	-32.1	-33.5	-30.0	-1.0	-2.1	-4.7
자본잉여금	금액	1.4	1.5	1.5	1.8	1.9	1.8	1.9
	증가율	-3.6	2.7	1.9	20.1	33.9	22.8	30.1
이익잉여금	금액	11.5	11.8	12.3	12.6	12.8	13.6	14.1
	증가율	72.3	73.5	73.9	67.1	11.5	14.8	14.8
자본조정	금액	-0.3	-0.3	-0.3	-0.2	-0.2	-0.6	-0.6
	증가율	-39.6	-38.6	-32.4	-61.5	-17.2	104.7	87.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1	3.0	3.3	3.8	3.7	5.1	4.9
	증가율	32.9	-4.3	1.5	25.8	21.3	71.8	45.6
자본총계	금액	17.9	18.2	19.0	20.3	20.4	22.1	22.4
	증가율	35.1	28.5	29.3	37.4	13.8	21.3	18.0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112.9	116.5	123.4	132.0	138.6	146.0	151.8
	증가율	25.0	23.3	24.6	29.0	22.8	25.3	23.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대부분 자산의 이익률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2%p 낮아진 4.4%를 기록하였고, FY2010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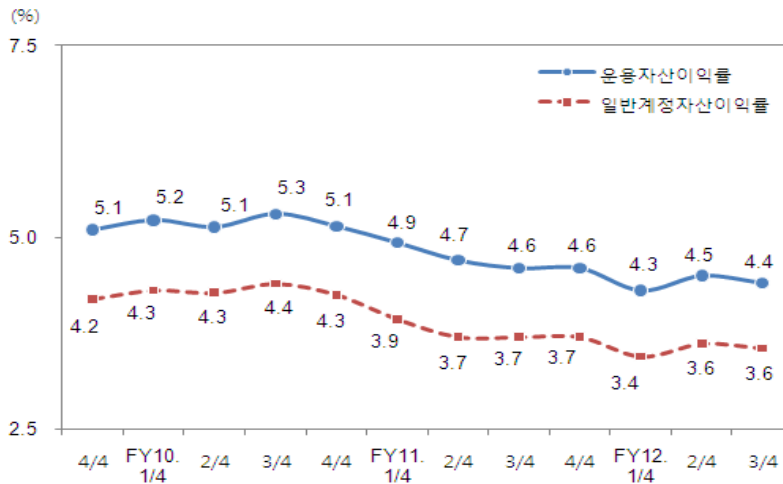
- 유가증권 이익률의 경우 당기손익인식증권 이익률이 크게 상승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이익률이 낮아져 전체 0.1%p 하락한 4.5%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 대출채권, 부동산 이익률은 각각 1.0%p, 0.1%p, 0.3%p 하락한 2.8%, 5.6%, 1.0%를 나타냄.

■ FY2012 3/4분기 일반계정 기준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3.6%, 대출채권 18.2%, 현금과 예금 5.3%, 부동산 4.4% 순임⁹⁾.

- 현금, 대출채권, 부동산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확대됨.
- 한편, 유가증권 비중은 매도가능증권 44.9%, 만기보유증권 3.9%, 당기손익인식증권 3.5%,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 예금	6.0	3.8	6.3	3.6	6.8	3.8	5.9	3.6	5.3	2.8
유가증권	49.9	4.6	51.0	4.7	51.1	4.1	52.4	4.5	53.6	4.5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7	1.2	3.7	2.1	3.3	3.3	3.5	5.8	3.5	4.7
- 주 식	0.3	-25.1	0.2	-17.1	0.1	-21.3	0.1	11.3	0.1	6.3
- 채 권 등	1.2	7.7	2.1	5.0	2.0	4.9	2.1	6.7	2.0	5.4
- 수익증권	2.3	2.2	1.4	2.1	1.3	3.6	1.3	3.3	1.3	3.1
○ 매도가능증권	41.8	5.0	42.7	4.9	42.4	4.2	43.7	4.5	44.9	4.5
- 주 식	4.1	1.9	4.5	2.9	4.2	-0.3	4.2	0.3	4.4	0.5
- 채 권 등	28.9	5.4	35.0	5.3	34.7	4.9	35.8	5.2	36.6	5.2
- 수익증권	8.8	5.0	3.2	3.6	3.5	3.4	3.7	2.6	3.8	3.0
○ 만기보유증권	3.1	5.4	3.0	5.5	3.8	5.4	3.7	5.4	3.9	5.3
- 채 권 등	2.8	5.4	3.0	5.5	3.8	5.4	3.7	5.4	3.9	5.3
- 수익증권	0.3	5.1	0.0	0.0	0.0	0.0	0.0	0.0	0.0	0.0
○ 투자주식 ⁴⁾	1.4	3.1	1.5	2.7	1.5	-0.2	1.5	0.9	1.4	1.4
대출채권	18.7	5.7	18.5	5.8	18.1	5.8	18.0	5.7	18.2	5.6
부동산	5.3	1.3	5.0	1.3	4.8	1.3	4.5	0.9	4.4	1.0
운용자산	80.0	4.6	80.7	4.6	80.7	4.3	80.9	4.5	81.5	4.4
비운용자산	20.0	0.0	19.3	0.0	19.3	-0.1	19.1	-0.1	18.5	0.0
일반계정자산	100.0	3.7	100.0	3.7	100.0	3.4	100.0	3.6	100.0	3.6
일반계정자산	96.6	3.7	96.2	3.7	96.3	3.4	96.2	3.6	96.2	3.6
특별계정자산	3.4	0.0	3.8	0.0	3.7	0.0	3.8	0.0	3.8	0.0
총자산	100.0	3.5	100.0	3.5	100.0	3.3	100.0	3.4	100.0	3.4
총자산 규모	1,232,944		1,298,013		1,385,178		1,459,065		1,517,939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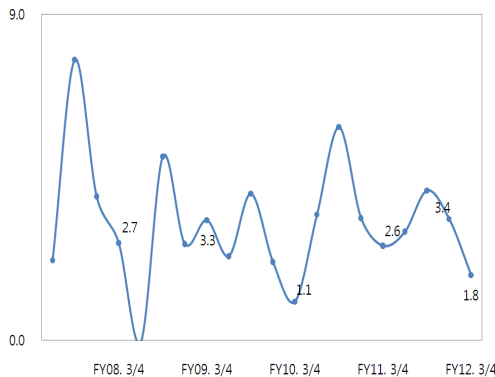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⁰⁾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한 1.8%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1.6%p 하락함.

-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9% 감소한 반면, 총자본은 21.2% 증가하여 자본이익률이 하락함.¹¹⁾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는 대부분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전업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확대에 따른 당기순손실 증가로 모두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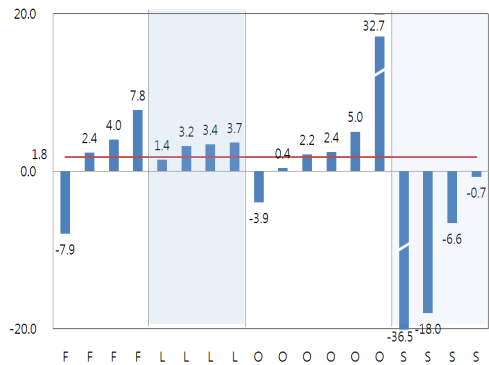
〈그림 1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1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0)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11)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18개 손해보험회사이므로 앞서 언급된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7.1%) 및 총자본(18%)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과 차이가 있음.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은 대형사가 소폭 하락하였고,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소폭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낮아진 2.3%를 기록함.
-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각각 2.1%p, 2.3%p, 7.8%p나 하락한 0.7%, 1.3%, -10.2%를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²⁾	1/4 ³⁾	2/4	3/4
대형사	5.8	3.8	2.7	3.6	17.6	4.3	3.4	2.3
중소형사	6.3	0.8	2.8	-0.4	9.9	3.4	3.4	0.7
외국사	9.1	3.3	3.6	0.5	20.9	2.6	5.8	1.3
전업사	4.7	2.8	-2.4	-0.6	4.2	5.4	-0.9	-10.2
전체	5.9	3.4	2.6	3.0	16.4	4.1	3.4	1.8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을 분해하여 살펴보면,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와 유사하였으나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감소함.

- 레버리지비율은 중소형사가 소폭 하락(0.3%p)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보험영업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모든 그룹에서 하락하였으며, 특히 매출이익률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32〉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대형사	6.6	6.7	6.7	13.4	12.7	12.2	3.1	4.0	2.8
중소형사	13.4	13.2	12.9	14.1	13.8	13.3	1.5	1.9	0.4
외국사	2.4	2.4	2.4	23.4	23.7	23.4	6.4	10.3	2.4
전업사	4.9	4.5	4.7	17.7	17.7	17.5	-2.8	-1.1	-12.5
전체	7.3	7.4	7.4	13.7	13.1	12.6	2.6	3.5	1.9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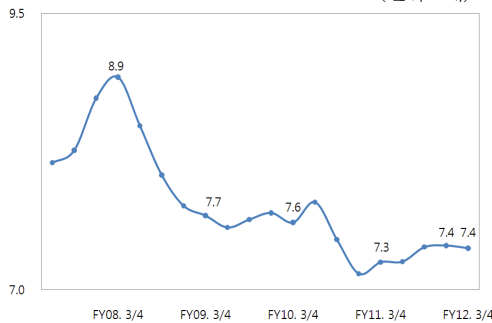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하면서 7.4배로 전년동기대비 소폭(0.1p) 상승함.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로는 대부분 중소형사 및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인 7.4배를 상회하였으나 외국사 및 전업사들은 평균수준을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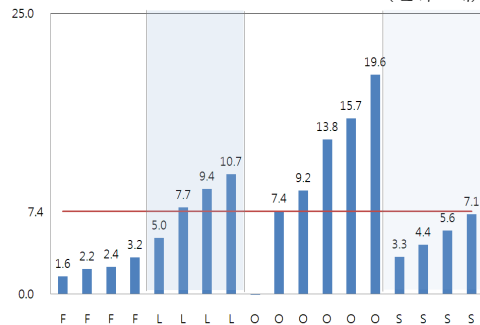
〈그림 15〉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1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3〉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¹⁾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3.3	4.5	19.6	1.4
중소형사	32.8	3.7	39.2	2.9
외국사	4.8	2.1	4.8	-2.1
전업사	-1.2	0.2	0.8	-7.3
전체	24.9	4.3	21.2	1.4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사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하락하였으며, 외국사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대형사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하여 0.1p 상승한 6.7배를 나타냄.
- 중소형사와 전업사 레버리지비율은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 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각각 0.5p, 0.2p 하락한 12.9배, 4.7배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¹⁾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형사	6.7	6.5	6.6	6.5	7.1	6.7	6.7	6.7
중소형사	13.7	13.3	13.4	14.0	14.7	13.9	13.2	12.9
외국사	3.1	2.5	2.4	2.4	3.0	2.4	2.4	2.4
전업사	4.8	4.9	4.9	4.9	4.7	4.6	4.5	4.7
전체	7.5	7.1	7.3	7.3	7.9	7.4	7.4	7.4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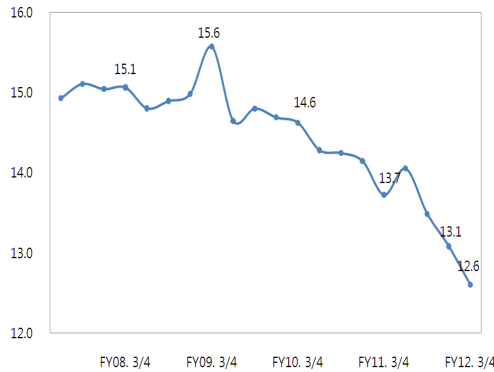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12.6%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외국사 및 전업사 자산회전율은 산업평균수준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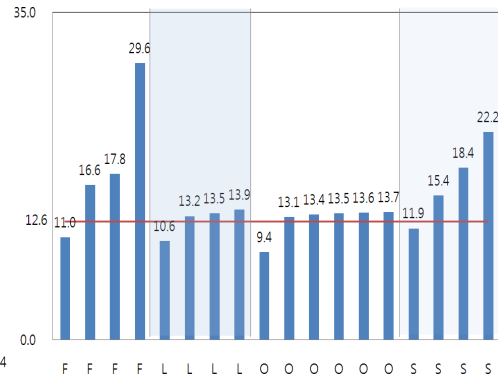
〈그림 17〉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1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은 보험영업수익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한 11.3%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영업회전율은 투자영업수익 증가로 0.3%p 증가한 1.3%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회전율 ²⁾			투자영업회전율 ³⁾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대형사	13.4	12.7	12.2	12.4	11.5	10.9	1.0	1.2	1.3
중소형사	14.1	13.8	13.3	13.1	12.5	12.0	1.0	1.3	1.2
외국사	23.4	23.7	23.4	22.4	23.1	22.7	1.0	0.6	0.6
전업사	17.7	17.7	17.5	16.9	16.9	16.8	0.8	0.8	0.8
전체	13.7	13.1	12.6	12.7	11.9	11.3	1.0	1.2	1.3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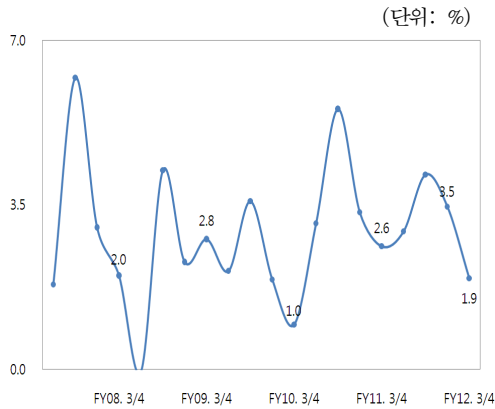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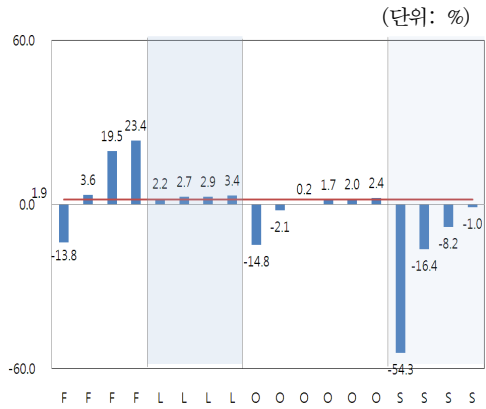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1.9%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전분기에 비해서도 1.6%p나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매출이익률 감소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다수의 중소형사 및 전업사는 산업평균수준(1.9%)을 크게 하회하는 음(-)의 매출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19〉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그림 2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7%p 하락한 -4%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0.4%p 상승한 7%를 나타냄.

〈표 36〉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FY2011 3/4	FY2012 2/4	FY2012 3/4
대형사	3.1	4.0	2.8	-1.8	-2.0	-3.2	6.9	7.3	7.3
중소형사	1.5	1.9	0.4	-3.9	-5.7	-5.8	6.1	7.8	6.7
외국사	6.4	10.3	2.4	5.8	10.0	-0.2	3.1	2.4	2.5
전업사	-2.8	-1.1	-12.5	-6.3	-4.6	-14.4	4.5	4.3	3.7
전체	2.6	3.5	1.9	-2.3	-2.8	-4.0	6.6	7.3	7.0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2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리점 및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확대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퇴직연금의 부진으로 1.7%p 감소한 19%를 나타냄.
-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지속으로 0.5%p 증가한 41.7%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 효과 등으로 1.1%p 증가한 9.5%를 기록함.

〈표 3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임직원	19,022	34,353	21,138	97,115	24,396	22,518	34,274	34,197
	13.4	20.7	13.1	15.9	14.5	13.5	19.0	19.3
설계사	47,161	48,001	49,012	189,640	49,886	52,119	52,267	52,081
	33.2	28.9	30.5	31.1	29.7	31.2	28.9	29.5
대리점	63,637	68,432	64,971	259,195	71,963	71,767	75,279	75,275
	44.8	41.2	40.4	42.5	42.8	42.9	41.7	42.6
중개사	1,113	1,275	930	4,424	1,113	1,206	1,421	1,421
	0.8	0.8	0.6	0.7	0.7	0.7	0.8	0.8
방카슈랑스	10,824	13,879	24,416	58,327	20,458	19,476	17,189	13,668
	7.6	8.4	15.2	9.6	12.2	11.6	9.5	7.7
공동인수	217	214	333	946	148	178	196	193
	0.2	0.1	0.2	0.2	0.1	0.1	0.1	0.1
전체	141,973	166,153	160,799	609,648	167,964	167,265	180,625	176,8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2 3/4분기 말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비정규직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26명 감소한 3만 2,438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상위 4사¹²⁾ 및 국내 중소형사¹³⁾를 중심으로 전속설계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1,620명 증가한 17만 165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상위 4사의 법인대리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00개 증가한 3만 8,957개를 기록함.

〈표 3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3/4 (농협제외)
임직원	30,060	30,470	31,003	31,816	32,464	32,438	31,967
설계사	161,129	161,441	161,237	167,101	168,545	170,165	168,968
전속	86,517	87,893	88,179	92,179	93,400	95,017	94,978
교차	74,612	73,548	73,058	74,922	75,145	75,148	73,990
대리점	41,034	40,543	39,818	39,425	38,857	38,957	38,905
개인	29,254	28,670	27,844	27,445	26,929	26,399	26,380
법인	11,780	11,873	11,974	11,980	11,928	12,558	12,525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2)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 의미함.

13)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제외한 국내사를 의미함.

IV. 글로벌 이슈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5호 (1. 7)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 ·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우리나라 출재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한 4조 5,417억 원이며, 수재보험료 규모는 13.3% 증가한 3조 8,776억 원임. (FY2012 상반기 재보험 실적 분석, 금감원, 12/31)
제215호 (1. 7)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공시이율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2013년 중 시행할 예정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12/28)
제216호 (1. 14)	보험상품설명서 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 ·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함. (보험상품설명서 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 1/10)
제216호 (1. 14)	수출입물가지수 하락세 지속 · 수입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가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2012년 9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1/10)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5호 (1. 7)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매킨 합의를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됨. (Wall street journal 등, 1/2)
제216호 (1. 14)	국가부채 상한조정 합의 난항 전망 · 1월 7일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초당정책센터(BPC)는 미국 국가부채가 2월 15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의회가 이 기간까지 국가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됨. (Reuters 등, 1/9)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5호 (1. 7)	프랑스, 부유세(tax on the wealthy) 법안 수정 불가피 ·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소득 100만 유로(13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부유세 과세 대상과 금액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CNBC, 12/31)
제216호 (1. 14)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 시기와 범위를 완화하기로 함. 글로벌 은행들의 자산 확충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이 활성화되고 통화정책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영향이 예상됨. (Bloomberg, 1/7)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5호 (1. 7)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 확산 ·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피, 무제한 금융완화 등에 대해 국내 외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일단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외, 1/2)
제216호 (1. 14)	日 재계,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 우려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엔화약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는 엔화약세가 일본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WSJ 외, 1/8)

■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5호 (1. 7)	12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 지속 ·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2012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과 동일한 50.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8개월래 최고치에 해당함. (신랑망, 01/01, 신화망, 01/01 등)
제216호 (1. 14)	위안화 평가절상 추세 지속 전망 · 중국 위안화는 2012년 3/4분기까지 평가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이후 평가절상 추세로 전환됨. (신랑망, 01/07, 신화망, 01/08 등)

『국내외 보험 · 금융 주요 뉴스』는 2013년 1월 21일부로 종간하고
2013년 1월 21일부터는 『글로벌 이슈』로 개편합니다.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7호 (1. 21)	미국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논란과 시사점 · 미국경제의 경우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회피한 것으로 보이나, 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정치권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 시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음. · 재정절벽 협상 문제와 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Guardian 등)
제217호 (1. 21)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전략 수정: HSBC의 평안그룹 지분매각 추진 · 최근 HSBC는 중국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HSBC의 사업부문 개편을 통한 수익성 제고, 은행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평안보험그룹의 지분을 전량 매각할 예정임. · 본 사례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중국사업 전략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재편될 수 있음. (FT, HSBC, WSJ 등)
제218호 (1. 28)	유럽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축소 · 아비바그룹과 ING생명 등 유럽계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해외보험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 이는 본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 및 유동성 확보, 내실 강화 전략, 솔벤시Ⅱ의 대응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전략 수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WSJ 등)
제218호 (1. 28)	아베노믹스와 엔화가치 · 지난 22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빨리 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현재 101조 엔인 자산매입기금을 10조 엔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로 함. · 최근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엔화가치는 급락하고 있으나 종전의 엔고 요인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 기초적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임. (일본은행 등)
제219호 (2. 4)	유로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 · 2012년 1/4~3/4분기 유로존 은행들은 거시·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촉발된 신용위험 노출 증가, 수익성 악화, 자본 감소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진 반면, 유로존 보험회사들은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ECB(2012. 12), Financial Stability Review)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19호 (2. 4)	중국 보험산업 최신 동향 · 2012년 중국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1조 5,488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호조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제220호 (2. 12)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시사점 · 1월 29일 2.00%를 기록하며 2% 대를 돌파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월 1일 2.01%까지 상승한 후 2%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과 같은 상승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가 지속될 경우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Wall Street Journal 등)
제220호 (2. 12)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심화 가능성 · KB금융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무산된 이후 재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ING생명 한국법인을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할 경우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대·중소회사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며 보험사간 M&A, 유기적 기업가치 제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생명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WSJ, 매일경제 등)
제221호 (2. 18)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하여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등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시장 국가 경제의 회복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외환시장이 교란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WSJ, 연합뉴스 등)
제221호 (2. 18)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휴·폐업 증가세 지속 · 최근 동경상공리서치가 발표한 '2012년 전국 기업도산 상황에 따르면, 전국 기업의 도산건수는 전년대비 4.7% 감소한 1만 2,124건을 기록하여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았으나 휴·폐업 해산 기업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휴·폐업 해산과 금융·보험업의 도산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회복 지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동경상공리서치 외)
제222호 (2. 25)	유럽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영향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구체 방안을 2013년 2월 14일 발표하였으나,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소송, 금융시장 왜곡, 소비자 부담 전가, 금융거래 위축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거래세 시행에 따른 마찰이 클 것으로 보임. (Bloomberg 등, 2/15)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22호 (2. 25)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 중국 보험산업 운용자산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음에 불구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존구조에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제223호 (3. 4)	미국 자동 예산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터 발동과 시사점 · 미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2013년 3월 1일 발동됨. ·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충격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Financial Times 등)
제223호 (3. 4)	높아지는 유로존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 Moody's의 영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영국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위기를 재부각시키며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2013년 초 만기도래 국채규모가 크다는 점, 유로화 강세로 인한 유로존 국가의 수출 회복세 둔화 등은 유럽지역의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FT, WSJ 등)
제224호 (3. 11)	일본, 아베노믹스 가속화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는 향후 과감한 금융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아베노믹스에 동조하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음. · 아베노믹스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신문 등)
제224호 (3. 11)	EU의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 ·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이 논의되었으나 영국의 반대로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함. ·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은행권 상여금 지급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인수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규제안은 향후 유럽연합 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임. (한국경제, Financial Times 등)
제225호 (3. 18)	유로존 경기침체 지속 · 유로존의 2012년 4/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6%, 2012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됨. 지역별로는 독일, 프랑스의 주요국과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권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전환되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권은 경기침체가 심화됨. (ECB, 3/6)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25호 (3, 18)	중국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강화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들어 전국 일반분양 주택 판매면적 및 판매금액이 대폭 상승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금액 및 주택착공 면적도 크게 증가함. (신랑망, 신화망 등)
제226호 (3, 25)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시사점 · 2012년 3월 15일 노무라 증권이 이코노미스트 Zhiwei Zhang과 Wendy Chen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최근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Wall Street Journal 등)
제226호 (3, 25)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영향과 시사점 · IMF · EU · ECB는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금자에게 손실 부담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 EU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EU의 경기 회복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EU의 예금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장기적으로는 유럽 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Bloomberg, WSJ, FT 등)

V.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4.2	3.4	3.6	3.3	2.8	2.4	1.6	1.5
경상수지		1,406	5,374	7,894	11,394	2,560	11,189	14,562	14,828
수 출		130,986	142,605	141,253	140,370	134,846	140,130	133,125	139,768
수 입		123,949	134,298	134,957	131,209	133,671	130,431	125,652	129,831
실업률		4.2	3.4	3.1	2.9	3.8	3.3	3.0	2.8
금리	국고채(3년)	3.79	3.68	3.60	3.41	3.46	3.39	2.88	2.81
	회사채(3년)	4.58	4.46	4.34	4.26	4.28	4.04	3.44	3.31
소비자물가지수		102.8	103.6	104.7	104.9	105.9	106.1	106.4	106.7
환율	원/달러	1,120.4	1,083.9	1,083.0	1,144.8	1,131.2	1,152.1	1,132.9	1,089.9
	원/엔화	1,362.1	1,327.0	1,392.7	1,479.7	1,427.9	1,436.9	1,441.2	1,346.1
KOSPI		2032.38	2116.55	1936.81	1849.30	1972.55	1910.29	1902.32	1940.24
외환보유고		298,618	304,485	303,384	306,402	315,952	312,378	322,015	325,506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92,827	109,208	117,097	124,734	121,898	139,042	174,037	201,794
- 생 보	64,883	78,241	89,732	97,036	96,401	105,806	145,350	169,906
- 손 보	27,945	30,967	27,364	27,698	25,497	33,236	28,687	31,889
은 행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120,525	113,355	104,974
- 일 반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108,131	54,395	118,680
- 신 탁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12,394	58,960	-13,706
증 권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33,365	67,718	-22,900
투 신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83,820	32,104	21,299
중 금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490	-17,161	-2,493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58,357	89,359	91,316
	증가율	1.5	3.1	-1.2	16.1	5.0	42.6	107.5	108.6
	구성비	19.4	20.8	18.5	23.1	20.4	23.8	31.8	29.1
사망	보험료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76,376	76,309	77,232
	증가율	-0.3	-0.3	-0.2	0.8	0.0	6.8	6.5	7.6
	구성비	34.0	34.6	30.3	32.2	32.7	31.1	27.1	24.6
생사 혼합	보험료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46,073	54,615	52,905
	증가율	13.1	14.5	7.4	29.0	16.3	68.5	91.7	79.9
	구성비	13.0	13.8	12.4	16.6	13.9	18.8	19.4	16.9
변액 보험	보험료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52,354	51,775	52,803
	증가율	17.8	20.0	3.1	0.3	9.7	-1.2	-5.4	1.3
	구성비	25.2	26.4	22.0	23.7	24.2	21.3	18.4	16.9
개인계	보험료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74,256
	증가율	6.4	7.5	1.5	8.2	5.9	20.9	37.5	39.1
	구성비	91.5	95.6	83.2	95.6	91.3	95.1	96.7	87.5
단체	보험료	17,839	9,040	39,798	9,831	76,508	12,126	9,175	39,083
	증가율	59.9	12.5	1.4	-31.0	5.3	-32.0	1.5	-1.8
	구성비	8.5	4.4	16.8	4.4	8.7	4.9	3.3	12.5
합계	보험료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245,286	281,233	313,339
	증가율	9.5	7.7	1.5	5.6	5.8	16.5	35.9	3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2,312	26,191	25,789	26,428	100,720	25,718	26,885	28,993
	증가율	8.5	22.2	-4.9	1.1	5.7	15.3	2.7	12.4
	지급률	54.5	60.8	58.9	51.2	56.1	44.1	30.1	31.8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36,023	37,941	38,191	40,956	153,111	42,030	43,438	42,291
	증가율	0.0	3.4	4.0	8.2	4.0	16.7	14.5	10.7
	지급률	50.4	53.0	53.2	56.7	53.3	55.0	56.9	54.8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2,250	13,020	13,229	14,533	53,032	30,094	24,049	23,177
	증가율	1.8	4.1	-29.6	-2.3	-8.9	145.7	84.7	75.2
	지급률	44.8	45.7	45.0	39.1	43.3	65.3	44.0	43.8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3,532	26,282	23,464	31,495	114,772	27,824	29,795	30,903
	증가율	29.7	-8.4	-40.2	-11.4	-11.3	-17.0	13.4	31.7
	지급률	63.3	48.0	45.0	59.3	53.9	53.1	57.5	58.5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04,117	103,433	100,672	113,413	421,635	125,666	124,167	125,365
	증가율	10.2	4.1	-17.4	-0.9	-2.0	20.7	20.0	24.5
	지급률	54.0	52.3	51.1	53.0	52.6	53.9	45.6	45.7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28,259	13,788	39,190	14,077	95,315	13,814	11,716	18,069
	증가율	52.0	9.3	-8.7	-57.1	-10.9	-51.1	-15.0	-53.9
	지급률	158.4	152.5	98.5	143.2	124.6	113.9	127.7	46.2
전체	지급보험금	132,376	117,221	139,863	127,490	516,950	139,480	135,883	143,434
	증가율	17.1	4.7	-15.2	-13.4	-3.8	5.4	15.9	2.6
	지급률	62.9	56.6	59.0	56.9	58.9	56.9	48.3	45.8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사업비	8,802	9,138	8,827	9,168	35,935	9,077	9,970	10,157
	증가율	12.3	17.2	5.9	2.2	9.1	3.1	9.1	15.1
	사업비율	21.5	21.2	20.2	17.7	20.0	15.6	11.2	11.1
사망 보험	사업비	19,017	20,312	20,788	20,939	81,056	21,511	22,634	23,625
	증가율	1.8	10.8	14.3	2.3	7.2	13.1	11.4	13.6
	사업비율	26.6	28.3	29.0	29.0	28.2	28.2	29.7	30.6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6,058	6,147	5,878	6,216	24,299	5,972	5,678	6,101
	증가율	26.8	20.8	2.3	-0.2	11.2	-1.4	-7.6	3.8
	사업비율	22.2	21.6	20.0	16.7	19.9	13.0	10.4	11.5
개인 보험계	사업비	33,877	35,597	35,493	36,324	141,291	36,590	38,253	39,882
	증가율	8.3	14.0	10.0	1.9	8.3	8.0	7.5	12.4
	사업비율	17.6	18.0	18.0	17.0	17.6	15.7	14.1	14.5
단체 보험계	사업비	979	1,052	1,209	1,121	4,362	1,117	1,213	1,136
	증가율	-10.7	10.2	26.9	-7.5	3.4	14.1	15.3	-6.0
	사업비율	5.5	11.6	3.0	11.4	5.7	9.2	13.2	2.9
전체	사업비	34,857	36,649	36,702	37,445	145,652	37,707	39,466	41,018
	증가율	7.6	13.9	10.5	1.5	8.2	8.2	7.7	11.8
	사업비율	16.5	17.7	15.5	16.7	16.6	15.4	14.0	13.1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화재	보험료	2,660	624	598	758	656	782	758	946
	증가율 ³⁾	-3.7	0.4	-0.7	-2.7	-0.2	25.3	26.7	24.8
	구성비	0.5	0.4	0.4	0.5	0.4	0.5	0.5	0.5
해상	보험료	7,721	2,393	2,138	1,833	2,335	2,356	2,217	2,165
	증가율	-4.1	14.8	8.5	-5.5	35.2	-1.5	3.7	18.1
	구성비	1.5	1.7	1.5	1.1	1.5	1.4	1.3	1.2
자동차	보험료	124,133	31,977	33,128	32,803	32,507	32,615	32,157	32,268
	증가율	10.6	9.1	8.3	2.2	1.1	2.0	-2.9	-1.6
	구성비	23.8	22.7	23.3	19.7	20.2	19.4	19.2	17.9
보증	보험료	13,074	3,547	3,634	3,908	4,083	4,081	3,810	3,913
	증가율	6.4	11.0	22.0	14.4	17.2	15.1	4.8	0.1
	구성비	2.5	2.5	2.6	2.4	2.5	2.4	2.3	2.2
특종	보험료	37,120	10,409	10,270	11,026	9,525	12,377	11,867	12,063
	증가율	11.5	7.7	13.7	10.8	12.5	18.9	15.5	9.4
	구성비	7.1	7.4	7.2	6.6	5.9	7.4	7.1	6.7
해외 원보험	보험료	2,326	636	667	854	1,007	997	1,147	1,314
	증가율	11.9	46.9	17.4	21.8	61.6	56.6	72.1	53.8
	구성비	0.4	0.5	0.5	0.5	0.6	0.6	0.7	0.7
장기 손해	보험료	281,813	76,818	81,166	86,877	96,572	98,381	100,619	99,782
	증가율	21.0	15.3	16.9	20.4	31.3	28.1	24.0	14.9
	구성비	53.9	54.6	57.2	52.3	60.1	58.6	60.2	55.2
개인 연금	보험료	24,697	7,586	8,200	9,145	9,343	9,857	10,296	10,707
	증가율	38.4	37.2	40.9	41.9	35.2	29.9	25.6	17.1
	구성비	4.7	5.4	5.8	5.5	5.8	5.9	6.2	5.9
퇴직 보험	보험료	5,284	516	4	92	224	1	6	2
	증가율	-39.1	-46.3	-98.6	-97.7	102.3	-99.8	48.5	-97.7
	구성비	1.0	0.4	0.0	0.1	0.1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23,616	6,218	2,169	18,857	4,547	6,516	4,389	17,465
	증가율	190.9	160.7	93.2	26.6	-12.8	4.8	102.3	-7.4
	구성비	4.5	4.4	1.5	11.3	2.8	3.9	2.6	9.7
계	보험료	522,444	140,723	141,973	166,153	160,799	167,964	167,265	180,624
	증가율	19.2	16.5	16.0	13.6	21.0	19.4	17.8	8.7

주: 1)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1.0	66.3	62.6	59.1	68.1	52.7
	사업비율	55.9	45.3	52.7	48.4	48.8	43.8
	합산비율	116.9	111.6	115.3	107.5	117.0	96.5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2.2	63.5	60.2	64.3	49.7	56.1
	사업비율	35.2	31.3	42.1	26.8	24.9	42.3
	합산비율	77.4	94.7	102.3	91.1	74.6	98.4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3.0	65.0	67.5	61.0	68.6	48.1
	사업비율	11.0	14.6	14.4	10.0	14.1	14.0
	합산비율	54.0	79.6	81.9	70.9	82.7	62.0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9.2	70.9	69.6	61.1	79.8	72.1
	사업비율	19.4	17.2	23.6	19.5	17.6	20.6
	합산비율	88.5	88.2	93.2	80.7	97.4	92.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6.6	53.8	55.5	53.6	55.7	54.5
	사업비율	41.3	46.0	50.1	40.6	35.8	38.1
	합산비율	97.9	99.8	105.6	94.3	91.5	92.6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78.5	112.1	131.0	65.5	57.3	47.4
	사업비율	27.5	29.4	29.4	35.3	28.7	60.1
	합산비율	106.0	141.5	160.4	100.8	85.9	107.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3.3	85.4	80.6	78.2	82.1	91.9
	사업비율	20.2	20.8	22.0	20.8	21.9	21.6
	합산비율	103.5	106.2	102.5	99.0	103.9	113.5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2.6	83.2	84.6	84.3	84.5	82.9
	사업비율	16.8	16.4	16.7	16.6	17.3	18.2
	합산비율	99.4	99.6	101.2	100.9	101.8	101.1
전체	경과손해율	80.7	82.7	82.8	80.4	82.4	82.3
	사업비율	18.2	18.1	18.9	18.2	18.7	20.0
	합산비율	98.9	100.8	101.7	98.6	101.1	102.3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정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정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 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 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 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 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 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 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이성은 2013.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정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 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①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 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 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 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 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 3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 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3년 봄호 (통권 65호)

발행일	2013년 4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